

해님 아래에서 죄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죄라고 말하면 법에 걸리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참 진리를 따르는 기독교인들의 입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중막적 상황이 다물수록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음을 확신하고 더욱 믿음에 서는 크리스천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로마서 1:27)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7월 4일 (토) 제 1540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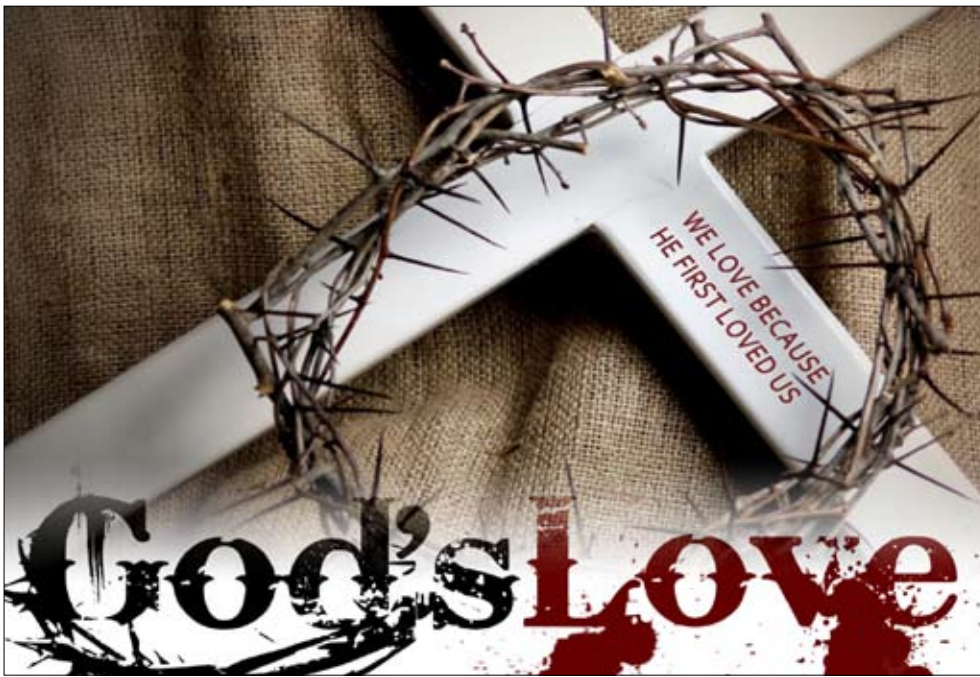
### 무지개색 물든 미국 "십자가 사랑" 으로 다시 칠하자!

#### 미 언론, '연방대법 동성결혼 합헌결정' 미국사회 대변화 예고 진단 보도

미국 연방대법원은 26일,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역사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미 50개 주 전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됐다. 결정은 대법관 9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으로 이뤄졌다. 지금까지는 워싱턴DC와 36개 주에서만 동성결혼이 허용됐으나, 이날 결정으로 미 전국에서 동성결혼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로써 미국은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한 21번째 국가가 됐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 허용 결정을 내린 26일, 미국 전역은 성적소수자의 권리보장을 지지하는 무지개색 물결로 뒤덮였다. 반면에 반대 의견을 내린 대법관들을 비롯 공화당, 복음주의 크리스천들은 일제히 염려와 걱정으로, 단순한 '호모포비아' 차원이 아닌 동성결혼 합헌 판결로 일어닥칠 후폭풍들이 얼마나 미국을 분열시킬지를 고심하고 있다.

길게는 50년 가까이, 짧게는 지난 18개월 동안 미국을 뜨겁게 달군 동성결혼에 대해 '최후의 보루'인 연방대법원이 대법관 5대4 판결로 합헌 결정을 내리자, 성적 소수자의 자유와 인권, 평등을 위해 싸워온 이들은 누구랄 것 없이 뜨겁게 포옹하고 눈물을 흘렸다.



연방대법의 동성결혼 합헌결정에 따라 성경적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의 입자가 점점 더 줄어졌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므로 지혜로운 대처가 필요하다.

미국에서 동성애 문제가 본격적으로 불거진 것은 바로 1969년 뉴욕 그리니치빌리지의 '스톤월 인' 시위사건 이후다. 게이 이바인 이곳에 1969년 경찰이 급습해 동성애자들을 범죄자 취급하자, 이에 맞서 격렬한 시위가 벌어진 뒤 스톤월 인은 게이 해방 운동의 출발지로 자리매김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동성결혼 합헌 결정은 어느 정도 예상돼왔다. 대법원은 앞서 2013년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게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DOMA)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동성결혼을 금지해달라'며 5개 주에서 제기한 상고를 각하함으로써 이

들 지역에서 동성결혼 허용의 길을 텅텅 닦았다. 동북부의 매사추세츠 주가 2004년 5월 미국에서 처음으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이후 2000년대 말까지 동성결혼을 인정한 주는 손에 꼽을 정도였으나, 2013년 대법원 결정 이후 급속히 늘기 시작했다. 2013년 8곳, 2014년 16곳에 이어 현재 36개 주로 늘어났다.

(3면으로 계속)



### 기독교로 이뤄진 국민통합 또 다시...

#### '2015독립기념일 통해 본 '건국의 아버지' 등의 대국민통합원리 '기독교' 가치

미국은 많은 국가들처럼 '왕'이 세운 나라가 아니고 '정부'가 먼저 들어서서, 위로부터 세워진 나라가 아니다. 유럽에서 신대륙으로 건너온 대부분의 기독교 신자들에 의해 작은 공동체들이 시작되고 아래로부터 '풀뿌리 민주주의'로 세워져 나간 나라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모두 신앙의 사람들이었다. 독립선언서 및 미국 헌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유 평등, 인간의 가치 등 기본 기독교 정신이 들어있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유럽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었던 큰 두 가지 제도를 만들었는데, 하나는 왕정이 아니라 '대통령'제였고, 다른 하나는 '종교자유'였다. 이 종교자유 기치아래 기독교 신앙은 미국 역사를 꿰뚫으며 국가와 국민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것이다. 그리고 미국을 하나의 '기독교국가'(Christian commonwealth)로, '기독교 문명'(Christian civilization)으로 세우려고 하는 끊임없는 시도와 노력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2013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국민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은 '건국의 아버지들'(Founding Fathers)이 현재의 미국에 실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3,67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선조들이 현재의 미국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는 질문에 전체의 71%가 '실망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만족할 것'(27%)이라는 응답 비율의 2.6배에 달하는 것이며, 10년 전인 지난 2003년 조사 당시 '실망할 것'이라는 응답이 48%(만족할 것 50%)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서도 훨씬 높은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최근에 벌어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교회 총격 사건과 같은 해묵은 인종갈등에서부터 동성결혼 합헌이라는 앞으로 벌어질 변화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을 최고 사법부가 내릴 정도로, 미국은 '건국의 아버지'들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추구하고자 했던 미국의 모습에서 멀어져 가

고 있기 때문이다. 조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 후 기독교적 공화주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그러나 연합헌장체제 하에서의 미국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시달리게 됐다.

(3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3. 박사: 목회학(D.Min)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ATS, TRACS 정회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가장 세속적 도시 뉴욕, 복음으로 변화시킨다" (2)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6면  
예수를 사랑함으로 정결케  
이르자!

www.rpts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생모집**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15년 가을 학기 주.야간 모집학과

대학부	신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과	4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대학원	목회학 석사	3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기독교교육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선교학 석사	2년	대졸 및 동등학력자
	*여교역학과	3년	고졸 및 동등학력자

◆ 제출서류 ◆

1. 입학원서(본교 소정 양식) 1통
2. 당회장 또는 목사 추천서 1통
3. 최종학교 졸업 및 성적 증명서 각 1통
4. 신앙고백서 1부
5. 명함판 사진(2"×2") 2매
6. 입학 전형료 30불

◆ 원서교부 및 접수 ◆

1. 원서 교부처 : 신학교 사무실(퀸즈장로교회 내 2층)
2. 원서접수마감 : 2015년 9월 4일(금) 오후6시
3. 입학 시험 : 2015년 9월 5일(토) 오전11시, 면접 오후 2시
4. 개강 부흥회 : 2015년 9월 8일(화) - 10일(목) 저녁 8시
5. 문의처 : Admission Office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 (718)463-7163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학장 장영춘 박사





# 시론

## “인권인가? 특권인가?-분명한 나팔을 불어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그동안 염려한대로 지난 26일 미 연방대법원에서는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온 미국 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가장 치욕스런 결정을 하였다. 1969년 뉴욕 그리니치의 한 조그마한 술집 스톤웰 인(Stonewall Inn)에서 동성애자들의 집단폭동으로 유발된 동성애 합법화 논쟁이 46년 만에 일단 대법원의 막을 내리게 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한 21번째의 국가가 되었으며 이제 미국 내 그 어떤 주에서도 동성결혼을 막을 수 없는 법적 장치를 마련한 셈이다. 그동안 주 법에 따라 금지되었던 300여만명의 동성 커플들은 물론 점점 대세가 되어가는 동성커플들의 요란한 결혼식들이 대대적으로 치러지는 것은 물론 성의 아름다움의 파괴, 사랑의 혼란, 가정의 파괴, 무질서한 사회의 모습들이 더욱 더 뚜렷하게 우리 눈에 펼쳐질 것이다.

문제는 동성애에 대한 단순한 종교적 신념, 혹은 신학적 교리를 넘어서 다양성과 인권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위장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 하에 있는 21세기의 보편적 문화현상이라는 데 있다. 결국 이 시대는 다양성, 소수 인권 존중이라는 포장된 세속적 정치권력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 있음을 심각하게 목격하고 있다.

원래 다양성과 조화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중의 하나였다. 진정한 다양성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각기 종류대로’(창1:11, 24-25)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따라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순응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움이 되는 것이다(창1:25).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도 다양성과 조화와 질서를 기반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사람과 여자를 창조하시되(창1:27), 남자에게서 여자를 나오게 하고 돕는 배필이 되게 하심으로 질서있게 하셨으며(창2:18, 23), 남자와 여자를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어 조화롭게 하셨다(창2:21-24). 거기에는 어떤 부끄러움도 없었고 그러한 질서와 조화의 다양성 속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삼위일체적 거룩한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놀라운 복이 되는 것이다(창1:28).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존재하기 이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이전의 모습은 어떠한가? 그것은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은’(창1:2) 상태였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세속화된 이 사회는 점점 창조의 아름다움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나아가 혼란과 공허, 어두움의 시야가 더욱 깊어지며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밖에 남겨질 것이 없을 것이다(롬1:26-32).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하는 또 다른 요인은 소수, 인권, 평등이라는 가치 개념들이다. 원래 이러한 가치들은 하나님께서 제일 강조하시는 공의의 핵심가치들이다. 여성의 인권이 전무한 구약시대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도 드보라를 사사로 세우셨고, 여리고성의 기성 라합을 구원하셨고, 모압 여인 룻을 통해 다윗 가문을 형성하는 구약사의 주요 인물이 되게 하셨다. 진정한 인권은 무엇인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아름다운 인간으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이다. 이것은 인간의 정육대로 죄를 지으며 방탕과 방종으로 나아가는 길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선진화된 국가가 방종과 방탕으로 나아가지 않는 인간다움의 권리를 보장하고 장려하고 증진시켜 나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주어져 있다.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세속적인 정치, 문화, 경제 권력으로 무장된 허리우드의 음란한 바벨론 앞에 무릎 꿇은 거대한 공공의 모습이다.

우리는 이제 심각한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그동안 이러한 세속주의 앞에 우리는 너무 소극적이고 안일하게 대응해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넉넉하고, 외형적으로는 박해와 핍박이 없기에 오히려 풍요와 안일, 물질의 미혹에 넘어 갔으며, 뜨겁지도 차지도 않고 부족한 것이 없으며 스스로를 부자라고 자부하다가 마침내 주님께서 토해 버리실 라오디게아교회(계3:14-22)로 변질되어 버린 형국이다.

미국 최대 개신교단인 남침례교 로니 플로이드(Ronnie Floyd) 총회장은 얼마 전 교단 총회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정의하신 결혼에 대해 인간이 다시 정의할 수 없다”고 못박으며, “이제 남침례교는 동성애 문제 앞에 소심하고 애매모호하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며 치열한 영적 전쟁을 시작할 것”을 천명하고 나섰다. 빌리 그래함의 아들인 프랭클린 그래함(Franklin Graham)도 “이제 미국이 예수가 존재했다는 것을 부정하기 원하는 세속주의자들이 장악했다”고 하면서, “미국은 변했고 이제 우리도 대처해야만 한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살아만 있었다.”고 개탄했다. 이제 침묵하는 다수가 하나님의 공의를 대변하지 않는다. 말하는 소수가 되어야 한다. 비록 나에게 불이익이 오고, 불편함을 가져오고, 거북스러운 상황이 오더라도 진리와 복음의 나팔을 운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힘차게 불어라. 애매한 나팔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뿐이다.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렘5:1)는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 남은 자가 되어 진정한 인권, 진정한 소수, 진정한 평등의 복음, 진리와 공의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을 힘차게 울려 불어라 한다.

# “가장 세속적 도시 뉴욕, 복음으로 변화시킨다” (2)

## 리더십저널, 뉴욕 리더머장로교회 팀 켈러 목사의 도시변화 전략과 구체적 실천사항 소개

### 교회 배가 운동

도시 전반에 퍼지는 복음 운동이 되려면, 앞서 언급한 핵심 주변으로 두 번째 차원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다양한 교파 내부에서 발생하는 교회배가운동이다. 침례교와 장로교, 오순절교파와 성공회, 루터파 등 다양한 교파 가운데 새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움직임이 일어나야 한다. (누락된 교파들에게는 미안하지만, 개신교 교파만 해도 26,000개가 넘으니 이해를 바란다.)

도시는 다양한 모습을 띤다. 게다가 하나님만 아시는 여러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뉴욕 시민이 하나같이 장로교만 찾지는 않는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게 현실이다! 사람들은 오순절교회만 찾지도, 침례교만 찾지도 않는다. 무슨 연유인지 모르나,

당신의 네트워크에 소속된 교회들 중 절반이 5년마다 다른 교회를 개척하는 상태를 뜻한다. 새로운 교회들이 성장하면서 옛날 교회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 사역 생태계

두 중심원 곁을 둘러싸고 있는 세 번째 요소는 가장 복잡한 차원인데, 나는 여기에 사

1. 도시 차원의 기도운동. 한 도시를 위한 연합 기도운동이 뜨겁게 일어날 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난다.

2. 다양한 연령과 지역, 단계, 국적, 종교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전문적인 복음전도. 지역 교회에는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다. 청소년, 학생, 사업가, 예술가, 다양한 신앙을 지닌 사람들에게 다가가려면 도움이 필요하다.

3. 정의와 자비. 도시의 당면 문제들을 공략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며,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정의와 자비 사역 분야의 전문가들이 필요하다.

4. 직업과 소명. 예술가 모임, 언론인 모임, 기업가 모임, 교육가 모임 등이 필요하다.



## 교회배가운동엔 다양한 전통 교파 네트워크에 소속된 새 교회 생겨나야 연합기도운동, 전문적 복음전도, 신학교육기관 설립 등 사역네트워크 필요

하나님은 다양한 교파를 통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에게 다가간다. 따라서 이 여러 교파가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도시를 품는 일은 요원해진다.

각 교파만의 독특한 차이점은 아주 중요하다. 당신만의 고유한 색깔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하지만 도시 차원의 운동에서는 너무 출신만 따져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인보다 장로교인의 정체성을 앞세워서는 안 된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고, 나머지는 다 그 다음이다. 침례교인이나 장로교인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아시아계나 남미계나 하는 문제는 모두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다음에 오는 문제다.

그리스도의 몸이 각종 교파로 갈라리 나뉘 도시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돕지도 동역하지도 못한다. 그러나 교파의 장벽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사역은 생각지도 못하고 도시를 품는 사역도 불가능해진다. 내가 말하는 ‘배가운동’이란

접근하기 때문에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21년 된 우리 교회가 요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우리 교회가 생기고 첫 5년 동안 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원래가 그렇다. 새 교회는 오래된 교회들보다 5-7배나 더 많이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다가간다. 왜냐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렇다. 사회적인 이유도 물론 있다. 새로 생긴 교회들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좀 더 집중한다. 하지만 교회가 나이를 먹으면, 점차 교회 내부 사람들의 필요에 관심을 갖기 마련이다.

한 도시의 그리스도의 몸이 전반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교회가 필요하다. 다양한 전통과 교파와 네트워크에 소속된 새 교회를 말이다.

역 네트워크의 생태계라는 이름을 붙여보았다. 생태계는 다양한 생명체가 먹고 먹히면서 생명을 유지해가는 환경을 가리킨다. 거기서 한 가지 요소를 제거하면 전체 생태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교회와 관계를 맺고 있는 일곱 종류의 사역 네트워크를 생각해보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교회병행단체나 특별사역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름이 가 어찌됐든 그 중 일곱 가지가 도시를 품는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부분 교파를 초월하여 만들어지는 이런 모임들을 통해 사람들은 서로 알아가고, 신앙이 우리가 하는 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관점을 형성한다.

5. 도시의 가정을 돕는 기관. 뉴욕시의 유대인 공동체는 가정생활을 돕는 훌륭한 사역을 해냈다. 커뮤니티센터와 학교, 각종 기관들은 도시의 가정들을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

(3면으로 계속)

<b>미주크리스천신문</b> The Korean Christian Press		<b>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b>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b>· 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		<b>· 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 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 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http://www.midwest.edu)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http://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http://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mailto: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4751  
E-mail: [wdc@midwest.edu](mailto:wdc@midwest.edu)



## 무지개색 물든 미국 “십자가 사랑” 으로 다시 칠하자

(1면에서 계속)  
애플의 최고경영자(CEO) 팀 쿡(54)이 지난해 10월 말 자신이 게이라고 공개해 선연해 등 미국 사회의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인정하는 쪽으로 흘러왔다.  
비영리단체인 공공종교연구소(PRR)가 이달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5%가 대법원의 합헌 결정을 전방한 것도 이 같은 흐름을 반영한 것이다.

이런 흐름은 1970년대 이후 본격화된 이민 물결로 백인·앵글로 색슨족·프로테스탄트(WASP)라는 미국 인구의 주류 지층이 바뀐 것과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금은 히스패닉계가 대선 판도를 좌우할 정도로 미국 내 인구 비중이 17.4%(5천540만명)로 크게 늘어난 상태다.

오바마 행정부가 성소수자 보호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온 것도 대법원의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평소 'LGBT'(레즈비언·게이·양성애자·성전환자)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는 정책을 역설해왔으며 미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올해 초 국정연설에서 LGBT에 대한 보호를 강조했다. 지난 2월에는 국무부 차원에서 LGBT 성소수자 특사를 임명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 결정 직후 트위터에 “평등을 향한 우리의 여정에서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며 환영의 글을 올린 데 이어 곧바로

특별 성명을 내고 “미국의 승리다. 이번 결정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일부와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 정치인 등 보수파들은 '전통적인 결혼의 의미가 정치적인 판결로 퇴색했다'며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강력히 반발해 앞으로 이 문제를 둘러싼 진보, 보수 간의 논란이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될 것임을 예

**5대4**

고했다.

특히 복음주의 크리스천들과 이번 결정에 반대한 대법관, 공화당의 차기 대선주자 등 보수파 인사들은 동성결혼 합헌 결정에 강하게 불만을 나타내는 성명을 잇달아 발표했다.

전날 '오바마케어'(건강보험개혁법)에 대해 예상 밖의 합헌 결정을 내렸던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동성결혼에 대해서는 반대 소수의견을 내면서 “이번 결정은 헌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혀 논란의 여지를 남겼다.

공화당 대선후보들도 일제히 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을 비판하고 나섰다. '제국적 대법원'이라

는 격한 표현도 나왔다.

바비 진달 루이지애나 주지사는 성명에서 “남녀 간의 결혼에 대한 규정은 하나님이 만든 것으로, 어떤 세상의 법원도 이를 변경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마이크 허커비 전 아칸소 주지사도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할 수 있는 '결혼의 재정의'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양분된 목소리를 냈다”며 5대 4로 갈린 대법원 결정을 거론한

## “수정헌법과 상관없는 정치적 논리와 시대상 반영 결정” 지배적 해석 대선가도에 직간접 영향... 주 정부의 지속적 수정헌법 지지만이 대안

뒤 “제국적 법원의 (합법화) 결정을 묵인하지 않을 것이다. 사법부의 폭압에 저항하고 거부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콧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도 “대법원이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 남은 유일한 방법은 주 정부가 계속 결혼의 정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수정헌법을 지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이번 연방대법원 판례는 '대선가도'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된다. 벌써부터 동성결혼을 지지해온 민주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과, 보수 결집을 야기해 공화당에 유리할 수 있다는 상반된 분석이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이

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08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으나 최근에는 “동성결혼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며 지지도 급진화했다. 공화당 예비주자들은 한결같이 이번 합헌 판결이, 수정헌법 10조항에 명시된 주정부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그리고 더욱 중요한 수정헌법 1조항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맹공격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이미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경고한 것처럼, “수정헌법”

는데, 대법원이 이날 결정의 논리를 14조에서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결국 수정헌법 1조항의 “종교의 자유”, 그리고 10조항의 “주정부의 결정권”이 14조에 밀린 것이다.

따라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결혼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본 보편적인 정의는 역사적인 우연이 아닌 자연적인 필연에 의해 나온 것”이라면 동성결혼 합헌 결정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라고 했다. 보수 성향의 안토니오 스키타리아 대법관도 동성결혼에 대한 민중적인 토론을 법리적인 의견이 빠진 상태로 대법원이 끝냈다면 이번 결

교회공동체 역시 '세금 면제 혜택'을 박탈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다. 당장이라도 주일설교에서 목회자가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금하고 있는데, 미국의 최고 법원이 동성결혼을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라고 설교하면, 종교기관이 교회가 정치적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세금면제” 혜택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론으로,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미국은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어찌까지 그 파장이 미칠지 이제부터 밀어닥칠 쓰나미와 같은 후 폭풍의 위협성들을 아무도 예상할 수 없다. 그런데도 소수자였기에 차별을 받아왔다는 동성연애자나 지지하는 세력들은 승리의 개가를 부르고 있다. 바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크리스천들은 바로 이 순간 더욱더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 십자가에서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사탄의 해괴 죄악은 무력해지기 때문이다. 사랑만이 모든 것을 포용하고 변화시킬 수 있다.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을 기록, 심판 그리고 자비라는 3원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이제는 ‘호모포비아’에서 벗어나, 동성연애자들에게 다가가야 한다. 다가가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 무지개 색 모두를 지우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우고 새롭게 칠할 수 있는 대안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없다!

## 기독교로 이뤄진 국민통합 또 다시...

(1면에서 계속)  
국민통합이 시급한 당면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으로 국민통합을 이루는 유용한 도구였던 국교가 미국에서는 불가능해졌다. 새로 제정된 연방헌법 수정조항 제1조에 의해 개인에게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가의 공식종교를 지정할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미 종파 및 종교가 다양했기 때문에 그 어느 한 종파를 미국의 공식종교로 삼을 수도 없었다.

혼란스런 시기에 공식종교의 부재는 미국이라는 국가 자체에 종교적 가치와 도덕적 의미를 부여하는 '시민종교' 형식으로 이어졌다. 국민통합이라는 대 명제에 대한 고민의 산물인 미국시민종교는 기독교를 근간으로 했다. 미국인들을 정신적, 문화적으로 통합할 뿐 아니라 국가의 도덕적 사명을 규정하고 제시하며 이끌어줄 버팀목으로서의 기능을 기독교가 제공해주었던 것이다.

헌법수정조항 제1조를 통해 제도로서의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는 정교분리의 원칙을 천명하기는 했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건국의 아버지들이 오히려 광의의 종교, 특히 기독교의 문화적 기능을 중요시해

이를 통한 국민통합을 추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란과 갈등에 시달리던 당시 미국사회의 최대 당면과제는 국민통합이었다. 분열된 사회구성원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결속하는 것은 법이나 제도로서만 되는 것이 아니었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1786년에 한 말은 그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신성 공화국의 국민이 이전의 가치 및 문화와 결별하고 공화주의 이념에 걸맞은 가치 위에 내적 혁명을 완성해야만 하는 과제가 여전히 남

다. 국가의 공화주의 이상을 공유하며 동일한 목적의식 아래 힘을 합쳐야 진정한 사회문화적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이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진행된 것이 기독교의 시민종교화 과정, 즉 기독교의 개념적 틀을 원용해 국가에 준 종교적 의미를 부여하게 된 과정이다.

건국초기 미국 지도자들은 공화주의의 덕목인 공익추구와는 거리가 먼 '당파주의(factionalism)'가 미국사회 곳곳에서 득세해 분열하게 된 것에 대해 크게 염려했다. 펜실베이니아를 대표해 독립선언서 서명했던 러시(Benjamin Rush)가 “전쟁은 끝났지만 아메리카혁명은

아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단순히 영국왕정에서 벗어나 새로운 공화국을 시작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연합헌정 체제하에서의 혼란스런 경험을 통해 알게 됐기 때문이다.

이미 다양한 배경과 이해의 충돌로 인해 갈등하는 국민을 무엇을 통해 통합할 수 있을 것인가? 공동체 구성원들을 정신적으로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그 무엇인가가 필요했다. 전통적으로 로마제국시대 이래로 이러한 국민통합 역할은 국교가 담당해왔다. 그러나 국민정체를 하나로 묶어줄 공식종교를 인정하지 않기로 한 미국은 어떻게 국민통

합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건국초기 지도자들은 기독교에서 그 해법을 찾았다. 미국인들은 독립혁명의 과정을 겪으면서 기독교적 개념과 어휘로서 정치공동체가 지향하는 방향과 가치를 이해하는 경험을 했던 터였다. 더구나 단합된 국가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라도 당시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기독교만큼 광범위하게 국민을 아우르고 통합할 수 있는 가치체계는

개개인의 종교자유를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최소한 공직자들은 기독교적 가치를 믿는 이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했다. 왜냐하면 그들이야말로 공화주의의 기초인 도덕성을 함양하고 유지하기 위한 정책을 실행하는 책임을 지는 자들이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몇몇의 주 헌법은 기독교신앙을 가진 자를 공직자로 세워야 함을 간접적인 표현을 통해 정

Prayer)라는 순서가 취임식 의식에 포함됐다. 또한 취임식 후에는 '국가적 기도회(national prayer service)'를 따로 개최해, 미국이 기독교를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려 국가의 출발에 종교적 정당성을 부여했다. 또한 미국이라는 국가의 신적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성경 위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서를 했다. 취임사 말미에는 준비된 원고에 없었던 “그러니 신이시여 도우소서(So help me God)”라는 말을 덧붙여서, 대통령 취임식 선례를 마련하게 됐다.

결론으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수년에 걸친 토론 끝에 고안한 국가인장(Great Seal)은 미국의 시민종교적 확산과 희망을 선포하는 상징물이 됐다. 라틴어로 “그가 우리의 일을 인정했다”라는 문구를 넣음으로써 미국이 하나님에 의해 선택됐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미국의 사명이라는 것을 항구적으로 되새기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국민 통합을 염원했던 '건국의 아버지'들의 기도와 염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미국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번에 맞는 독립기념일은 그 어느 때보다 더 기다려진다. '건국의 아버지'들이 해낸 국민통합을 이제는 우리 크리스천들이 다시 해나가야 하기에...

## ‘건국의 아버지들’ 현재 미국에 실망할 것...70% 워싱턴은 기독교적 의식 대통령 취임의례에 도입

없었다. 국교의 형태로 기독교를 개별 시민에게 강요할 수는 없어도, 기독교가 미국의 정체성 및 정신적 가치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했던 것이다.

기독교 신앙이 국가의 도덕적 기초가 돼야 한다는 절박함도 미국시민종교의 형성에 적지 않게 작용했다. 기독교 내의 그 어떤 종파도 공식종교가 될 수 없다 할지라도 식민지시대부터 정신적, 문화적 버팀목이 돼왔던 기독교 자체와 완전히 단절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거의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국민

독립전쟁기의 전쟁영웅으로서 미국인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기도 했던 워싱턴이 건국초기 한층 더 숭앙 받게 된 것은 바로 그의 '통합' 철학과 행보 때문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대통령의 최대덕목과 역할은 특정 파당이나 지역이 아닌 미국 전체의 공익을 수호하는 것이었다.

워싱턴은 또한 기독교적 의식을 대통령 취임의례에 도입함으로써 미국이 기독교의 정신 위에 세워졌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임을 암묵적으로 환기시켜 기독교가 시민종교화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취임식 기도(Inaugural

## “가장 세속적 도시 뉴욕, 복음으로 변화시킨다” (2)

(2면에서 계속)  
6. 신학훈련기관. 교회는 캠퍼스에 신학적으로 준비된 사람을 빠르게 전문적으로 공급해, 이들을 통해 젊은이들을 진리로 이끌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해야 한다.

7. 기독교 지도자들의 연합. 교회와 여러 사역 단체의 지도자들이 연합해 일할 기회가 많으면 서로 연결 수 있다. 우리가 이 도시의 어느 영역을 품어야 할지 함께 토론하고 분별할 수 있다. 교파 이기주의를 초월해 더 큰 이익을 위해 동역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말하는 생태계 환경이다. 교회는 이 사역들에 인력을 공급하고, 사역단체들은 또 교인을 만들어내며 서로 공생하는 관계 말이다. 이렇게 상호 의존하는 힘으로 복음운동이 전진할 수 있다. 이 일곱 가지 요소를 갖추면, 제대로

된 복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제 한 집단, 한 교회, 한 단체를 초월한 성장과 변화를 목격할 것이다.

복음 운동이 진행 중일 때, 그리스도의 몸은 도시 전체가 티핑 포인트에 도달하는 단계까지 발전하게 된다. 즉, 복음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임계치에 도달한다. 사람들이 그 도시(의 문화)에 미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을 눈으로 확인하고 인식하게 된다. 이 정도가 되려면 그리스도인 수가 전체 인구의 10-20퍼센트에는 도달해야 한다.

예를 들면, 새로운 유형의 주민(기존 주민보다도 부유하거나 가난할 수도 있고, 문화적으로 다를 수도 있다)이 전체 인구의 5퍼센트 미만이면 그 동네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하지만 새로운 주민의 비율이 5-20퍼센트에 달하면 어떤 문화권에서는 지역 정서가 달라진다.

재소자 사역 단체들은, 재소자 중에 그리스도인 비율이 10퍼센트가 넘으면 교도소 문화가 변한다고 말한다. 재소자들 사이의 관계는 물론, 재소자와 교도관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뉴욕 시에서는 어떤 집단의 인구가 5-15퍼센트에 달하고, 그 구성원들이 공공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 다른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뚜렷한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볼 수 있다.

맨해튼 지역에 부는 변화의 바람

우리는 맨해튼 지역의 교회 성장 현황을 조사해보았다. 20년 전에는 어퍼 웨스트사이드/어퍼 이스트사이드에서 맨해튼 끝까지 총 인구가 약 110만 명, 복음주의 교회는 100여 개가 있었다. 20년 후인 현재는 약 200개의 복음주의 교회가 있다.

20년 전에는 맨해튼 인구의 1퍼센트 미만인 9000명이 교인이었다. 오늘날에는 그 비율이 3퍼센트에

달하고, 숫자도 3만5000명이다. 리디머장로교회는 꽤 규모가 큰데,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개척했다. 그런데 이 새로운 교회들 중에 우리가 직접 관여한 교회는 1/4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우리로서는 고무적이다.

다시 말해, 어느 한 교회, 한 단체, 한 교파를 초월하는 어떤 움직임이 뉴욕시에 불고 있다는 것이다. 이 움직임은 특정 인종이나 민족 집단도 초월한다. 이것이 '복음운동'이다. 이 도시의 티핑 포인트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인구의 10-20퍼센트가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으로 이 도시와 문화 전체에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을 목격하기까지는 아직 요원하다. 이것이 우리의 목표다. 도시를 품으려 한 운동이 필요한데, 그것은 단순한 교회를 개척하거나 한 교파의 성장을 목격하는 것 이상이다.

나는 뉴욕 시민들이 이와 같은 도시 차원의 복음운동에 참여하기를 기도한다. 또 (당신이 뉴욕 시민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이 사는 그

곳에서 동일한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할 사람들을 일으켜주시기를 기도한다.

도시란 무엇인가

주로 '도시'로 번역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요새나 성벽으로 둘러싸인 인간의 정착지를 가리킨다. 고대 도시는 대부분 인구가 1000-3000명 정도였다. 따라서 '도시'라고 할 때는 인구수보다 인구밀도를 뜻했다. 시편 122:3에 이 밀도가 나온다. “예루살렘은 조밀한 도시같이 건설되었다”(현대의 성경). 여기서 ‘조밀하다’로 번역한 단어는 긴밀하게 엮이고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었다. 요새화된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조밀한 가족과 거리에서 서로 가까이 붙어살았다. 대도시 고대 도시는 크기가 2만-4만 제곱미터 정도에, 4000제곱미터 당 평균 거주자는 240명으로 추정됐다. 그에 비해, 현대의 맨해튼은 4000제곱미터 당 평균 거주자 수가 105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고대사회 도시는 요즘 말

로 하자면 도보로 다닐 만한 '다목적' 인간 주거지쯤 되겠다. 사람들이 밀집해서 살았기에 거주지와 직장, 상거래, 예술 행위, 예배와 정의 추구가 모두 도보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결됐다. 고대에는 시골과 작은 마을에서는 이런 기능을 다 감당하지 못했고, 현대 '교외'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를 고의로 피하고 있다. 교외 거주지는 단일용도 지역이 여럿 모여 있는 형태다. 거주지와 직장, 휴양과 교육 장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데, 대부분은 걸어가기에는 위험한 장소를 통과해야 하기에 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도시를 도시 되게 하는 것은 '근접성'이다. 도시는 사람들을 한데 모은다. 그러면서 거주지와 직장, 문화기관도 모인다. 도시는 길거리 문화와 시장을 만들고, 도시에서는 일대일 인간관계가 그 어떤 곳보다 빈번이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성경 저자들이 '도시'라고 할 때 뜻하는 바였다.



#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의교회)



## 준비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사람들은 많습니다. 지구촌은 70억이나 넘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사람, 훈련된 사람,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사람이 많은데 사람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반 기업의 문제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직장을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기업에 꼭 필요한 훈련을 받은 인재는 늘 부족합니다. 인재를 키워 내지 못한 기업은 경쟁력을 잃고 이미 망했거나 앞으로 망할 것입니다. 제너럴모터스(General Motors)의 회장이었던 잭 웰치(Jack Welch)가 '기업의 건강은 최고의 사람을 뽑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한 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의 성패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 제대로 훈련된 일꾼이 없으면 언제든지 망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 조직, 일, 재정, 그리고 계획 등이 중심인 조직체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프로그램과 인사 그리고 재정 목표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초점을 맞춘 생명력 있는 유기체가 될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조직체 교회는 고아원이 되지만 유기체 교회는 가정입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역을 준비하시며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시며 12명의 평범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3년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을 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다시 '사람'을 부탁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시며 사람을 훈련시키고 목양하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대한 조직이나 권력이 아닌, 훈련된 소수의 제자들을 통해 세상을 바꾸어놓으셨습니다.

훈련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교회의 제자훈련도 다시 점검할 필요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계속 제자훈련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의 프로그램은 필요에 따라 새로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합니다. 제자훈련이 단지 교회 프로그램이라면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훈련의 '한 영혼' 철학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철학입니다. 제자훈련의 목표가 사람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교회가 지난 27년 동안 제자훈련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는 더 많았습니다. 훈련을 받고 준비된, 예수님을 사랑 하는 제자들이 구석구석 많이 있

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묵히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작은 예수들이 많이 있는 교회입니다. USC 철학과 교수이고 복음주의 최고의 변증가였던 달라스 윌라드(Dallas Willard)가 훈련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세상에서 중요한 일치고 훈련 없이 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적인 삶도 훈련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훈련 없이는 삶의 만족감과 질, 품위를 전혀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사람으로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숙련을 낳습니다.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No Pain, No Gain). 하나님 앞에서 체계적으로 말씀 훈련을 받아 하나님께 준비된 일꾼으로 쓰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2015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둘째 날 설교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옛날에는 이가 흔들리거나 잇몸이 부으면 바람이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풍치'라고 했지요. 그런데 요즘 현대에서 X-레이로 자세히 보니까 잇몸이 붓고 아프고 이가 흔들리는 이유가 치석이 끼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를 잘 닦지 않으면 치석이 납니다. 그 치석이 이빨 사이로 들어가니까 풍치가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치과에 가서서 딥클린(deep clean)을 하시면 이가 많이 좋아집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가만히 놔두면 이빨처럼 썩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의 칫솔로 매일 매일 우리의 영혼을 닦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자주 닦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닦아야 될 것입니다. 치아 썩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썩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닦지 않으면 썩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갈고 닦아야 될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불신자와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과의 차이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사람은 진짜 성도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진짜란 말과 반대어 개념으로 '날라리'란 말이 있습니다. 진짜 성도의 반대가 날라리 성도입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날라리입니다. 한번

은 교회에 왔다가 한 번은 세상에서 살다가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하는 분이 날라리입니다.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변화가 없는 사람이 날라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저와 여러분 매일, 살아있는 예리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밥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밥만 먹고 사는 것은 뭐라

고 하는 줄 아십니까? 식충이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힘든 이민 생활 속에 정신없이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식충은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는 밥만으로 살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밥으

## “교회여 연합하라” (에베소서 1:22-23)

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하는 것이요.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적인 사람입니다.

말씀 없이 떡으로만 살다 보니까 내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여러분 주위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떡으로만 살면서 지치고 힘들어 하는 인생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 힘이 있고 뭔가 희망이 있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위에 지은 집이 있고, 모래위에 지은 집이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모릅니다. 모두가 근사한 집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그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모래위에 세운 집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반석위에 세운 집은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초가 반석위에 놓았기 때문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내 말

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위에 세운 연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반석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집을 어디에다 세우셨습니까? 우리는 가끔 내 인생의 집이 반석위에 있는지, 모래 위에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영혼의 상태가 건강할 상태인지 또는 진짜 성도인지 날라리인지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우신

여러분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위에

세워져 있지 않고 모래위에 세워져 있다면 지금부터 다시 새로운 집을 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집을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사업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이민 오셔서 영어도 잘 못하면서 부지런히 집을 지어갑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신앙의 집을 짓습니다. 오늘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마라,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너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러려 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여러분의 집은 어디에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우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야곱, 이삭, 요셉, 다윗 모든 신앙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몸을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우라 그냥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믿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사업체와 이 교회에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모래 위가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세우시는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사 10면]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미연방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의 진정한 의미와 대안

미국 연방 대법원의 9명의 판사들은 4월 28일 공청회에서 쌍방의 찬반논리를 들은 이후 거의 2개월이란 시간동안 자신들이 이미 갖고 있는 생각과 주장을 펼치며 서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그리고 마침, 6월 26일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은 미국 역사상 또 다른 최악의 치명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결혼을 미 전역에 합법화 하는 것을 5대4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의미는 동성결혼을 "연방헌법상의 권리"라고 미국의 헌법상 있을 수 없는 결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판결은 미국 헌법상에 적혀

혼관을 혼돈 시키고 미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에게는 치명적이고 사악한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Anthony Kennedy 판사는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는 Ginsburg, Breyer, Kagan, Sotomayor 판사들의 편에 서고, John Roberts 대법원장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Scalia, Alito, Thomas 판사들의 편에 서셨습니다.

이번 결정에 적극 반대한 보수파 판사들인 Clarence Thomas, Samuel Alito, Antonin Scalia는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여부자체는

니었다는 것은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요.

이번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편에선 앤토니 케네디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의 연합은 그 어떤 연합보다도 가장 이상적인 연합이다. 결혼이란 사랑과 충실함과 헌신, 가족을 위한 희생이 있기 때문이다.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은 한 명일 때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행복해진다. 결혼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까지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들(동성애자)은 결혼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은 이들의 소망이었다. 이들이 결혼도 못하고 외롭게 살아가는 것은 문명시대에 뒤

단체인 ACLU의 일원이고 ACLU와 함께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Stephen G. Breyer 역시 1994년에 빌 클린턴에 의해 임명되었으며 Sonia Sotomayor는 2009년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 Elena Kagan은 역시 2010년에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습니다.

동성결혼을 적극 반대한 판사들은 어느 대통령들이 임명했나? John Roberts 대법원장과 Clarence Thomas, Samuel Alito 3명은 모두 보수파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었고

### 찬성판사 클린턴, 오바마 임명 · 반대판사 부시, 레이건 임명 정치지도자의 중요성 절감, 교회와 성도 깨우는 계기 삼아야

있는 하나님의 권리와 미국 유권자들을 대적하는 결정이며 성경적 결혼을 보호해주는 각 주의 결혼 개정법 및 모든 법률을 부정하게 합니다. 그동안 미국의 헌법상, 그리고 주정부 법률상 미연방 대법원에서 "결혼의 정의"까지 이렇게 "결론"을 내어 정리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법정 결론은 법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참으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미국의 역사상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며, 만일 미국의 founding fathers(건국의 아버지/지도자)들이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들었다면 참으로 원통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진 이 미국 땅을 우리 21세기 사람들이 하나님을 가장 싫어하는 죄악으로 몰아가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결의 결정 과정에서는 아홉명의 판사들이 모두 동의한 내용은, 연방대법원은 입법기관이 아니기에, 자신들이 "동성결혼을 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법"을 정한 것이 아니라 "동성간의 결혼도 합법적인 결혼이라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애매모호한 발언과 결정은 결국 미국 안에 있는 시민들의 결

미연방대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이슈가 아니다. 이 사안은 미연방 대법원 판사들의 권한에 속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미연방대법원의 권리를 남용하는 일이다"라고요.

또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도했던 대법원장 존 라버츠(Chief Justice John Roberts)는 적극적으로 이 판결에서 동성결혼합법화를 반대하였습니다.

John Roberts 대법원장은 그가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에 반대한다는 자신의 결정을 29페이지에 걸쳐 적었는데, 그 문장에는 매우 중요한 법에 관한 글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미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이라면, 그리고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이라면, 오늘이 이 법정 결정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시오. 오늘, 당신들이 그렇게도 원했던 목표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며,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 감격을 나누십시오. 또한, 이 결정으로 인한 모든 혜택도 누리십시오. 하지만 이 판결에 관하여 마치 헌법이 바뀐 것처럼은 축하하거나 기뻐하지도 마십시오. 이번의 결정이 헌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의역하면, 이번의 결정이 헌법에 관한 판결이 아

떨어진 일이다. 그래서 이들은 법을 향해 자신들에게도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을 (결혼합법화를 통해) 보여 달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은 그들에게 동등한 결혼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라고요.

참으로, 마치 사랑의 시를 읊는 것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앤토니 케네디는 1936년생으로서 이미 80이 가까운 판사로서 어쩌면, 그의 삶 자체가 너무 외로운 사람이 아닌지... 개인적으로는 이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론적으로, 앤토니 케네디 판사와 대법원장인 존 라버츠 판사 두 명이 이번 판결에 각각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두 사람의 그 영향력은 계속 지속될 것입니다.

동성결혼 합법화 적극 지지한 판사들은 어느 대통령들이 임명했나?

동성결혼을 100% 처음부터 끝까지 적극적으로 지지한 판사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Ruth Ginsburg(1933년생)는 1993년 빌 클린턴에 의해 대법원에서는 2번째 여성판사로 임명되었으며, 가장 반기독교적 대표

Antonin Scalia는 역시 공화당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판사입니다.

swing 투표를 한 앤토니 케네디(Justice Anthony Kennedy)도 로널드 레이건이 임명한 판사이지만 처음에는 매우 보수적이었으나 2010년부터 그의 생각이 혼돈스러워졌습니다. 그는 2010년 오바마케어가 미전역적으로 시행되는 것을 통과시키는 것에 큰 역할을 함으로서 미국 보수파 시민들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준 인물입니다.

이번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우리가 얻은 두 가지 교훈은 지도자(정치지도자)의 중요성을 더 깊이 절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것. 무엇보다도 깊이 잠든 교회들과 그동안 침묵만 지키던 교회들과 성도들이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번 결과에 우리는 실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소망을 두며 전략적이고 확실한 대안을 세우는 계기로 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계속 나누겠습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isp0316@gmail.com

Q: 저희 교회는 5년 된 장로교회로서 개척 때부터 수고한 평신도들 가운데 두 사람을 교회의 지도자인 장로로 피택하여 하반기에는 당회를 조직하고자 합니다. 목회적인 견지에서 어떤 사람이 평신도 지도자인 장로로 선출되어야 하며 앞으로 당회를 조직하면 어떻게 회원 장로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하나요?  
-트랜스에서 김 목사

A: 지상 교회의 보이지 않는 최고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늘 예수님을 교회의 주인으로 의식하며 목사는 목회하여야 합니다. 목사가 교회의 대표라면 장로는 교인들의 대표격입니다. 장로교의 정치는 다른 교단 정치와는 달리 교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공동의회에서 2/3의 표를 받아 교회의 시무장로가 되면 담임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여 모든 행정적인 문제를 당회에서 처리하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로교회의 특징

장로는 담임목사의 비전과 사역방향에 동의하는 충성된 자라야

입니다. 그리고 제직회에서는 금전 문제만을 취급하지 행정적인 문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제 교회가 평신도 지도자들을 장로로 선출할 때 담임3장의 장로의 자격 15가지와 디로서 1장의 17가지의 장로의 자격을 먼저 교인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몇달간 기도하게 하고 한 주 전에 공동의회에서 광고를 하고 기도한 후 선출하게 합니다. 특히 교회의 장로는 목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교회문제를 의논하며 결정해 나가는 사람이기에 장로선출을 신중해야 합니다. 성경의 원칙대로 자격 있는 충성된 사람을 장로로 선출하되 특히 목회적인 견지에서 볼 때 교회의 지도자는 목회자의 비전이 나 사역방향에 동의하는 사람을 선출해야 할 것입니다. 담임목사의 목회철학을 잘 이해하고 담임목사에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이 좋습니다. 교회의 장로는 잘하면 담임목사에게 든든한 후원자가 되지만 잘못하면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단 장로가 선별되어 당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었으면 그 후부터 목회자가 알 것은 본질적인 문제와 비본질적인 문제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타협이 안되지만 비본질적인 행정들의 문제를 가지고 당회원들과 충동을 일으켜 대립구조를 만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복음과 목양, 제자훈련 같은 본질적인 문제는 생명을 걸어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이슈를 가지고 의견 차이 때문에 서로 싸우고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비본질적인 문제는 잘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고 적절한 실마리를 찾아 평화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장로들과 다투거나 지나치게 고집피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당회가 구성이 되면 당회원들은 목회자의 동역자들이기에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는 인간관계입니다. 특히 당회원과 인간관계가 틀어지면 목회가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늘 낮추고 섬기는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될 경우에는 의식적으로 이 집을 내 등에 진 십자가로 알고 묵묵히 지고 나가야 합니다. 장로와 목회자는 한팀이 되어 동역하는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의 통 큰 마음과 겸손, 철저히 내가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목회는 갈등하기 쉬운 인간관계를 잘 이끌어가야만 하는 고도의 예술이요 정치이기 때문입니다.

# 미주 갈멜산기도원 기도성회

2015년 6월 29일(월) ~ 7월 9일(목)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213.382.1450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조성근 목사

gstcenter98@gmail.com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 튜브 http://www.youtube.com/user/cbsolomontv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검색



### 2015년 부흥성회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1~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3일 인천강성교회(이철호목사) 8일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1~13일 (협동동인원노회 남부시찰 재직부흥회) 16일 과천교회(주원신목사) 18일 예복교회(소진우목사) 22~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7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스런교회(배만석목사)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3~25일 동춘교회(윤성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3일 예수비전교회(박정홍목사) 5일 흥신대학교 생명수련회(김지연총장) 9~11일 (협동)대백시찰 연합성회 16~19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26일 갈멜산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6~8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22일 안산 시민교회(이상권목사) 23일 김범대학교, 대학원 체류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화평교회(이재우목사)	1~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8~2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1일 예우림교회(류병희목사) 22~24일 남수원노회 교사강습회(합동) 25~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3~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6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27~29일 천마산기도원(육광석목사)	3~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9~12일 나사렛성경교단 연합성회 (장소: 나사렛대학교) 17~20일 GST 신학생훈련(35차) (장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 21~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러시아의 레즈긴(LEZGHIAN)



레즈긴족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의 두 번째로 큰 종족이다. 이 공화국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아름다운 코카서스 산맥에 위치해있으며 레즈긴족 대부분은 깊고 고립된 협곡과 계곡이 많은 높은 험준한 산악지대에 살고 있다. 여름은 덥고 건조하지만 겨울은 바

람이 많고 사나울 정도로 춥다. 일부는 겨울이 건조하고 온화한 카스피해 근처에서 산다. 19세기 중엽에 레즈긴족의 문자를 만들려는 시도가 있었다. 1920년대에 소련은 아랍문자에서 라틴 문자로 변경했고 다음 1938년, 라틴문자에서 키릴문자로 변경됐다. 러시아는 또한 아랍어와 페르시아어의 모든 단어를 러시아어 단어로 교체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문자를 가진다는 것은 러시아화 하는 것이 아니라 레즈긴족을 통일하는 데 이바지한다.

삶의 모습

레즈긴족은 이전에는 자유로운 사회에서 살았다. 사회는 남성 연장자들이 지도하는 큰 집단이나 씨족으로 이뤄져있으며 그는 집단에 관한 모든 주요 결정들을 책임졌다. 씨족은 투흠(tukhum)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현대화와 도시이주 증가 때문에 투흠은 그 중요성을 잃어가고 있다.

레즈긴 여성들은 코카서스 지역에서 카펫을 잘 짜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의 경제는 주로 식품 가공(육류, 치즈, 버터), 가죽공예, 직물생산에 기반을 두고 있다. 레즈긴인들 중 많은 이들이 다게스탄과 북부 아제르바이잔의 해안가 마을에서 계절적인 금속세공(무기 및 보석제조)을 해왔다. 이 때문에 그들은 아제르바이잔의 강한 영향

을 받게 됐으며, 이로 인해 레즈긴어와 아제르바이잔어를 함께 사용한다.

산악지대에서는 말, 노새, 물소와 함께 양과 염소를 기른다. 그들의 주식은 주로 육류, 우유제품이다. 산기슭 언덕에 사는 사람들은 밀, 보리, 감자, 양배추, 오이, 멜론, 토마토도 재배한다.

레즈긴족은 일반적으로 씨족 내에서 결혼하며, 나이든 여자들이 그러한 결정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칼림(kalim)"이라는 신부 값을 지불하는 관습은 아직도 시행되고 있지만 지금은 필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상징적인 것이다.

"레즈긴카(lezginka)"는 레즈긴족의 전통 민속무용이다. 한 쌍이 춤을 추기도 하고 남자 혼자 춤을 추는 춤도 있는데 종종 검무를 춘다. 독수

리 흉내를 내는 남자가 무릎 꿇고 몸을 기울여서 정확한 발걸음, 강한 팔동작과 몸동작으로 춤을 춘다. 쌍으로 추게 될 때 남자는 서로 접촉을 하지 않고 여자는 남자의 춤동작을 보면서 조용하게 춤을 춘다.

신앙

아랍의 무슬림들은 9세기 이후 레즈긴족에 강한 영향을 끼쳤다. 18세기 말에 레즈긴족은 이슬람으로 완전히 개종했다. 이는 "타리카(tariqa)"라는 반 비밀스런 수피파 단체의 체계적인 활동 때문이었는데, 이들은 소련 통치 동안에도 이슬람의 지하교파와 기도처를 만들었다. 오늘날 수백개의 이슬람 사원(mosque)이 다게스탄에 있다.

레즈긴족은 주로 수니파 무슬림

이지만 이슬람의 관행과 이전의 많은 신앙을 함께 혼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이교의 많은 신들의 이름이 알라신과 같은 것으로 됐으며, 봄과 파종 및 수확철에 몇몇 고대의 신들을 아직도 지키고 있다. 또한 동물의 뼈가 마법과 치유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다.

필요로 하는 것들

레즈긴의 많은 젊은이들은 이제 더 이상 부모의 종교적 전통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보다 더 복음에 열려있다. 하지만 세속적인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이 젊은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일이 간절히 필요하다.

현재 단지 26명의 레즈긴 성도가 있을 따름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이나 기독교 방송이 전혀 없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남부 주, 동성 결혼허가중 미루는 '최후의 저항'

미국 연방대법원이 동성 결혼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보수적인 남부 주는 동성 부부에게 결혼 허가증 발급을 보류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28일 지역 일간지 애틀랜타 저널 컨스티튜션, 정치전문지 뉴 리퍼블릭 등에 따르면,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앨라배마, 텍사스 등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남부 주는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허용 판결에도 종교 자유 원칙과 각 주의 권리 등을 내세워 하급심에 '명확한 지시'를 받기 전까지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을 미루고 있다.

남부 주는 대법원의 판결 전까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미국 14개 주의 다수를 차지한다.

동성결혼에 비판적인 남부의 주 정부는 연방대법원의 하급심인 연방지방법원이 각 주에 동성결혼 허가증 발급에 대한 확고한 명령을 내리기 전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이미 연방대법원의 합헌 결정으로 각 주가 이를 거부할 명분은 전혀 없지만 행정 절차를 이유로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후의 저항'에 나선 남부 주에서 정상적으로 동성 연인의 결혼 허가증이 발급된다면 수입 또는 수 주가 걸릴 것으로 미국 언론은 내다봤다.

이와 달리 연방대법원의 최종 심리에서 동성결혼 반대 주장을 펼 미시건, 오하이오, 켄터키, 테네시 등 4개 주에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연방지법의 명령에 관계없이 즉각 동성결혼 허가증이 발급됐다.

텍사스주, 종교자유 내세워 동성결혼허가중 발급 거부

미국에서 보수의 본산을 지켜하는 텍사스 주가 종교의 자유를 내세워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29일 지역 신문인 오스틴 아메리칸 스테이츠먼을 비롯한 미국 언론에 따르면, 켄 팩스턴 텍사스 주 법무장관은 동성 부부의 결혼 허가증을 발급하는 주(州) 내 카운티 법원 직원들에게 종교적 신념으로 동성결혼을 반대하면 그에 따라 결혼 허가증을 내주지 않아도 된다고 전날 성명서에서 발표했다.

이는 지난 26일 동성결혼 합헌 결정과 함께 미국 50개 주에 동성결혼 허용 판결을 내린 연방대법원의 방침을 거스른 것이다. 대법원의 역사적인 판결에 대해 '정치·사회' 운동가들의 법원에서 내린 결함이 많은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반발한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대법원의 판결이 수정헌법 1조에서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카운티 법원 판사와 직원들이 종교 자유의 신념을 바탕으로 동성결혼 반대 태도를 고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미국 전역 내 동성결혼 허용 방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는 법원 직원 등은 동성 연인들에게서 소송을 당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팩스턴 주 법무장관은 종교 신념을 구현한 법원 직원에게 최대한의 법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은 변호사가 종교적 신념을 펼친 법원 직원을 돕고자 대기하고 있다"며 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오스틴의 조지 세스카 변호사를 비롯한 동성결혼 옹호론자들은 주 정부가 앞장서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며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발언은 법적·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결혼 허용이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 된 이상,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발언에는 법을 능가하는 효력이 없다. 그러나 동성결혼에 반대해 온 보수 기독교 인사들을 결집하는 기폭제 노릇을 해 종교의 자유와 자유·평등의 시각으로 같은 동성결혼 논란을 더욱 부채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텍사스 주는 주 정부와 주 의회를 모두 보수 공화당이 장악한 공화당의 초강세 지역이다. 하지만, 미국 제



4의 도시인 휴스턴을 필두로 주도인 오스틴, 샌안토니오, 댈러스 등 외부인이 많이 살고 자유로운 상황의 주요 대도시는 민주당 소속 시장의 관할에 있다.

동성 연인이 농촌보다 주로 대도시에 거주하는 점에 비춰볼 때 법원의 허가증 발급 거부를 촉구하는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주장에도 이들이 결혼허가증을 받기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중남미 좌파국가들도 동성애자 권리에 눈길

미국과 대립하는 중남미의 좌파 국가들에서도 동성애자들의 권리는 싹트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26일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뒤 라파엘 코레아 에라도르 대통령은 27일 성소수자(LGBT) 단체 대표들을 만났다. 중남미 언론매체인 텔레수르가 보도했다. 코레아 대통령은 "차별에 맞서는 당신들을 존경한다. 평등을 위해 투쟁하는 당신들로부터 나는 많은 것을 배운다"고 말했다.

에라도르에서는 작년 9월 처음으로 동성 커플도 정부가 발행하는 신분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됐다. 코레아 대통령은 집권한 뒤 성소수자 단체와 수시로 만나다가 하면, 경찰과 복지 분야에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왔다.

전국 341개 교육 기관에서도 학생들에게 관련 교육을 하고 있다. 에라도르는 성적지향이나 성 정체성과 관련한 범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별도로 설치했다.

쿠바에서는 작년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역사적인 외교 정상화를 발표한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의 딸 마리엘라 카스트로가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권리 신장 운동에 적극적이다. 마리엘라 카스트로는 지난날 '세계 동성애자 및 성전환자 차별 반대'의 날을 맞아 이들이 결혼식을 올리는 상징적인 이벤트를 개최해 세계적인 시선을 끌었다.

쿠바 인민권력기회의(국회) 의원인면서 국립성교육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마리엘라 카스트로는 작년 6월 캐나다에서 토론토에서 동성애자 100명이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을 보고 영감을 얻었다. 쿠바에서는 동성애 간 결혼이 불법이고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성전환자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 마리엘라는 자신이 펼치는 그러한 운동이 "쿠바에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인 풍성함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멕시코 연방대법원은 미국의 이번 결정에 앞서 지난 17일 동성 간 결혼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은 "혼인 생활의 목적이 출산이 아니라면 결혼은 이성 간의 결합이거나 오직 남자와 여자 간에 이뤄져야 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할 합당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멕시코는 수도 멕시코시외를 포함해 키타나 루, 과일라 등 3개 주에서 동성 간 결혼을 허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29개 주는 법원의 허락을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금지되고 있다. 멕시코도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동성 결혼이 합기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대법원의 결정이 있은 뒤 멕시코, 칠레 등지의 시내에서는 성소수자들이 모여 이를 환영하고 권리 신장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중남미인들은 대다수가 동성애를 교리상으로 금기로 여기는 가톨릭 신도지만, 미국 대법원의 합헌 결정이 나온데다 최근 로마 교황청에도 이를 포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어 권리를 주장하는 움직임도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폭인교회들 동시다발 화재...FBI 중요범죄' 가능성 수사

최근 미국 남부 지역의 흑인 교회에서 잇달아 화재가 발생하자, 중요 범죄와의 연관성을 캐고자 미국 연방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일간지 워싱턴포스트와 시사주간지 타임, 공영방송 NPR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미국 주류·담배·화기·폭발물 단속국(ATF)은 화재

가 발생한 흑인 교회 지역의 경찰과 손잡고 증오에 따른 방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합동 수사를 벌이고 있다.

미국 언론을 보면, 21일 테네시 주 녹스빌의 칼리지 힐 제7일 안식일개척교회가 불에 탄 것을 비롯해 조지아 주 메이컨(23일),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24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워런빌(26일)의 흑인 교회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동시다발로 발생했다. 수사 당국은 4건의 화재 중 최소 3건 이상이 방화라고 단정했다.

경찰은 24일 테네시 주 김슨 카운티, 26일 플로리다 주 댈러헤시의 흑인 교회에서 난 불에 대해 번개나 누전에 의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고자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명 사고는 나지 않았으나, 샬럿 흑인 교회의 화재는 크게 번져 불을 끄려고 소방관 75명이 출동하기도 했다. 교회 본관이 전소한 탓에 이 교회는 25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를 봤다.

미국 언론과 수사 기관은 이번 화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흑인 교회 총기 참사 이후 일주일 사이에 발생한 사실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7일 백인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백인 청년 딜런 루프(21)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유서 깊은 흑인 교회에서 총격을 퍼부어 성경 공부하던 흑인 9명을 살해한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미국의 뿌리 깊은 흑백 차별이 다시 한 번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다.

참사의 주범인 루프가 남북전쟁 당시 노예제 존치를 주장한 남부연합 13개 주의 깃발인 남연합기를 들고 사진을 찍은 것을 계기로 남부연합기 퇴출 운동이 정·재계는 물론 미국 전역에서 거세게 불었다. 결국, 이로 인해 입지가 좁아진 일부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흑인 교회에 일부러 불을 질러 불만을 표출한 것이라는 증오 범죄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 단체인 남부민권센터(SPLC)는 흑인 공동체의 상징이자 중심인 흑인 교회를 겨냥한 백인 우월주의자의 습격이 남부에서 자주 발생한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 화재는 결코 우연이 아니라며 흑인 혐오에 따른 방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폴 브라운 FBI 대변인은 온라인 매체인 미스트피드와의 인터뷰에서 6건의 화재 모두 증오범죄라고 단정하기에 너무 이르다면서도 "정확한 범행 동기를 밝히고자 범행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했다.

루프의 범행 이전 흑인 교회를 표적으로 삼은 백인 우월주의자의 공격 중 최악의 참사는 1963년 앨라배마 주 버밍엄의 흑인 침례교회 폭발 사건이다. 클러스켄(KKK) 단원 4명이 다이너마이트를 동원해 자행한 폭탄 테러로 4명의 흑인 소녀가 목숨을 잃고 약 20명이 다쳤다.

"IS도, 시리아도 싫어" ...브라질에 난민 신청

시리아 정부군과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 국가(IS) 간의 무력충돌을 피해 브라질에 입국한 시리아인들이 난민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국영 뉴스통신 아제시아 브라질에 따르면 브라질 연방경찰은 시리아인 7명이 지난 22일 북동부 세아라 주 포르탈레자 시에 있는 핀투 마르칭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고 밝혔다.

모두 20대인 이들은 가짜 이스라엘 여권을 갖고 있었으며, 터키를 거쳐 브라질에 입국했다가 연방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전발 난민 신청을 했으며, 브라질 법무부 산하 국립난민위원회(Conare)의 심사를 거쳐게 된다.

연방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시리아 정부군이나 IS의 무장대원이 되는 것을 피해 브라질로 도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해 브라질에 정착한 난민은 2천320명으로 집계돼 2013년(651명)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난민 신청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립난민위원회에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2012년 4천689건, 2013년 5천882건에서 지난해는 8천302건으로 늘었다. 브라질은 다른 국가와 비교해 서류를 까다롭게 요구하지 않아 난민 신청이 몰리고 있다.

회비무료, 점심제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

- 1.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00~ 오후 4:00 장소: 조지아 서라벌 레스토랑 (770)497-1155 304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2. 일시: 2015년 8월 4일(화) 오후 2:30~ 오후 8:00 장소: 달라스 수라레스토랑 (972)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 75229
3. 일시: 2015년 8월 6일(목) 오전 11:00~ 오후 5:00 장소: 휴스턴 서울가든 레스토랑 (713)935-9696 9446 Long Point Rd, Houston, TX 77055
강사: 라홍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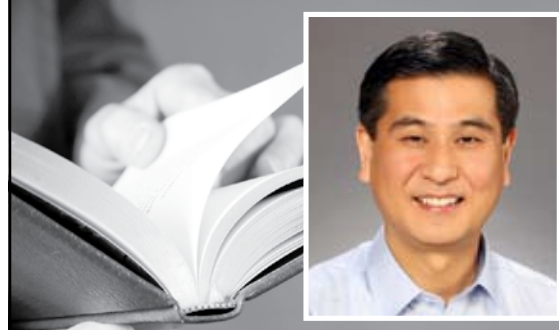
강사: 라홍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교회역시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25)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교부 (8) 변증 교부, 순교자 저스틴

'지성과 신앙'은 어떤 관계일까? 철학과 신학은 서로 어떤 연관을 맺고 있을까? 기독교의 진리는 사색적인가 아니면 실천적인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이 논리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가?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진 성도라면 이와 유사한 질문을 가지게 될 것이다.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말하지만,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타인에게 분명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다. 기독교의 진리를 전파하고 계승시키며, 나아가서 바르게 변증하려면 신앙의 체계와 내용이 설득력을 지녀야 한다.

질문: 초대교회의 초기 변증 교부들은 기존의 지성 체계 또는 철학과 기독교 신앙을 어떻게 접목시켰는가?

### 1) 플라비우스 저스틴

기독교는 유대교의 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에 예언된 메시아이다. 그러나 초대 교회의 신앙이 확립되는 과정 속에서 기독교는 헬라문화의 새로운 사상적 영향을 받아 더욱 견고하여졌다. 기독교와 헬라 철학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영적인 기독교 신앙이 세속 철학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다. 도리어 철학자들이 진리를

발견하고 설명하기 위해 고민하는 기본적인 '생각의 틀'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가 더욱 분명하게 설명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심에는 초대교회 교부 '순교자 저스틴'(Justin Martyr)으로 더욱 잘 알려진 플라비우스 저스틴(Flavius, Justin, 100?-165)이

있었다. 이교도 가정에서 태어난 후 헬라식 교육을 제대로 받은 저스틴은 항상 헬라철학에 심취하여 있었다. 다양한 형태로 발전된 헬라철학을 섭렵하며 기웃거리던 그는 결국 플라톤의 사상을 선택하여 수용하였다. 플라톤주의의 핵심은 '이데아론'으로서, 물질의 세계에 있는 모든 사물들은 초월적이며 완전한 형태를 지닌 '원형'으로부터 근원된 것이라고 믿었다. 그들은 이성의 역할을 통해 '원형'을 알 수 있다고 가르쳤다.

플라톤 철학에 젖어있던 저스틴의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은 무엇이 있을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다. 하나는 구약성경이다. 그는 하나님

의 삶이었다. 핍박과 순교로 인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운 환경에서도, 상황을 초월하여 당당하게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의 용기가 그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 회심한 후 그는 적극적인 태도로 사도적인 신앙을 지닌 자들로부터 복음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받았다.

그렇다면 회심한 저스틴이 자신이 추구하던 철학을 버리고 말았을까? 아니다. 그는 플라톤 철학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르게 설명하고 나아가서 변증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저스틴은 평생 기독교의 진리를 변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가 저술한 여러 권의 책 가운데 현재에도 잘 보존된 세 권

은 변증교부로서 그의 실력이 유감 없이 발휘된 수준 높은 변증서이다.

그가 '순교자 저스틴'이란 이름을 얻은 이유가 있다. 고백적인 신앙을 지키기 힘든 그 시절, 평생 기독교를 변증하던 그는 순교의 피를 흘렸다. 귀중한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기쁘게 그 쓴 잔을 마셨다. 결국 그는 말과 글, 그리고 죽은

## 구약 계시에 근거한 철학 발견 후 회심, 기독교인들 삶도 한몫 철학의 기본적 '생각의 틀' 통해 기독교 진리가 분명하게 설명

으로 기독교가 참된 종교임을 변증한 것이다.

### 3권의 변증서

저스틴이 150년경에 기록한 "제 1 변증서"는 모두 68장으로 되었다. 그리스도인을 무신론자라고 비난하는 말에 대한 변론(1-29), 예수는 구약이 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장(30-60), 세례와 주일에 배(61-67)에 관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공판 없이 정죄할 수 없음에 대한 주장(68장)을 담고 있다.

그 후 저스틴은 25장으로 구성된 "제 2 변증서"를 기록하였다. 당시 로마 시의 총독이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고백하였다는 이유로 처

형하는 일이 생기자, 로마 당국을 대항하여 앞으로 황제는 정의와 지혜는 물론 사랑하는 마음으로 판결할 것을 요구하는 글을 남긴 것이다.

160년대에 작성된 "유대인 프리폰과 대화"는 저스틴이 교양 있는 유대인과 2일간 나눈 대화 내용이 기록되어있다. 모두 142장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자신의 신앙 여정에 대한 자전적 기록 (2-8),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시된 새롭고 영원한 율법이라는 기독교 관점에서의 구약 해석 (9-47),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며 그를 높이는 것에 대한 정당함(48-108),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신약시대의 영적 이스라엘(109-142)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저스틴의 글은 처음부터 매우 분

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 그의 신앙적 확신이었다.

저스틴은 플라톤 철학을 통해서 기독교의 진리를 설명하였다. 헬라 철학은 로고스를 선제하고 절대적인 이성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저스틴은 요한이 말씀(로고스)라 설명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였을까? 저스틴은 그를 성육신하신 로고스라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지 않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로고스를 경배하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가 인간이 되고 우리의 곁에 참여한 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2 변증서, 13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직 철학적 사고의 틀을 완전히 벗지 못하는 면도 있었다. 그는 소크라테스 또는 플라톤 같이 로고스를 이해한 철학자들은 모두 기독교인이라고 단정하기도 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첫아들이라고 배웠고, 위에서 우리는 그가 모든 인류가 공유하는 말씀(로고스, 이성)이고, 이성에 따라 산 사람들이-비록 그들이 무신론자로 분류된다 할지라도-기독교인이라고 설명했다"(1 변증서, 46장).

나아가서 우리는 2세기 중엽 초대 교회의 세례, 성례,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우리가 가르치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그것과 일치하지 않지 않는 힘을 가지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이전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청하고 금식하도록 교육받는다"(61장). "이 음식은 우리에게 성찬식이라 불린다. 우리 가르침의 진리를 믿고 죄의 용서와 중생을 위해 씻음을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의 방향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만 참여가 허용된다"(65장)."  
(8면으로 계속)

## 가정사역 칼럼

### 가. 성경에 허락된 이혼의 두 가지 예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성경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이혼의 합당한 사유는 대략 두 가지로 정리되는데, 한 가지는 부부 중 한쪽이 간음(혼외정사)을 한 경우와 또 다른 한 가지는 신앙 때문에 상대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원치 않는 경우이다. 이 두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하나님 뜻 안에서 이혼이 허용되는 것이다.

#### 1) 배우자의 부정이나 외도

결혼생활을 하다가 부부 중 한 사람이 혼외정사를 저질렀다면 그는 혼인사약을 파기한 것이므로 결혼관계도 이미 파기된 것이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셨다.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나니라"(마 5:31-32).

이 말씀을 적용한다면, 한쪽 배우자의 부정이나 외도로 결혼생활에 위기를 맞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결혼의 연약이 깨어졌으므로 이혼이 성립될 수 있다는 말이다.

#### 2) 믿지 않는 자가 이혼하고자 할 경우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보내

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였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고전 7:15).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믿지 않는 배우자와 살 때(아마도 두 사람 다 불신자이었다가 한쪽이 전도를 받고 믿는 자가 된 경우),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위해 결혼에 매이지 말라, 곧 이혼해도 좋다는 말이다. 결혼을 지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신앙적인 갈등으로 인해 상대방이 헤어지고자 한다면 헤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두 경우에도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혼을 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혼의 경험을 가지셨던 많은 분

들은 "내가 조금 더 부부의 연합을 위해 교육과 상담 등의 도움을 받도록 노력했다면 이혼을 넘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고백하는 말을 들은 적이 많다.

#### 3)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육체적 성적 학대

성경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른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경우는 육체적·성적 학대를 당할 때이다. 말라기 2장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 폭력으로 무장하는 남자들이 미워하시며 제사, 곧 예배를 받지도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즉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시는 것만큼이나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인격적으로 미워하신다는 뜻이다.

만일 당신이 현재 육체적·성적 학대를 당하고 있다면 자녀들과 함께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에 상대를 그 폭력의 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결과가 어떻든 간에 상대의 죄악된 행동에 대해 당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또 결혼을 지키려는 모든 노력을 당신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결혼이 깨어졌다면, 강간이나 살인, 강도의 피해자에게 책임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에게 이혼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 곧 불필요한 수치감이나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 PRINTING & PROMOTION

# 프린팅 & 프로모션

##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전문

교회/매장/기타단체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타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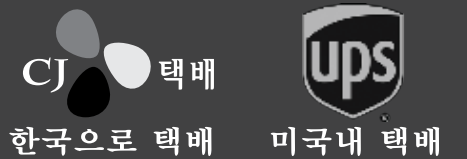
머그컵

#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토: 오전 9:30-오후 8:00

- 기독교서적
- 기독교용품
- 일반서적
- 서예용품 전문
- 2016년 달력제작



한국으로 택배 미국내 택배

##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기도는 누구나 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불신자도 기도한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대상과 개성이 우리와 다르다. 그들은 말 못하는 우상에게 하고(시115:4-8),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만의 특권이다. 기도는 여유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없는 시간을 내어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의무요, 특권이며 본업이 되어야 한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이 많았지만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했다고 한다. 기도는 한가한 시간을 매우기 위한 부업 같은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해야 할 의무이다. 유창하게 잘 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라. 마치 아이가 엄마에게 먹을 것을 구하듯이 그렇게 구하라. 여러 말이 필요 없고 응답될 때까지 부르짖으라. 예수님도

##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4)

### 기도는 우리의 본업이요 우리만의 특권이다(상)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이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은 기도는 주님의 명령이요(마7:7),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셨다(살전 5:17-18).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음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요,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만 내가 답답하고, 내 귀에 주의 음성이 안 들리고 주의 뜻을 알 수 없으니 높은 산을 찾다니면서 마음껏 소리치고 몸부림치며 울부짖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깨닫고 내려오곤 했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기도

다

세상에 중요한 것은 많다. 그러나 믿음이 사람들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기도가 신앙 생활의 본업이요,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시간을 많이 내야 한다. 모든 인간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비록 입으로 고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형태이든 종교를 갖고 있다. 그리고 어떤 종교에서든 다 기도를 하고 기도를 강조한다. 그리고 보면 기도는 종교 활동 일반에 나타나는 필수 덕목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타종교와는 달리 우리 기독교는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께만 기도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습관에 따라 기도했고(눅22:39), 밥을 새며 기도하고(눅6:12), 새벽 미명에도 기도하셨다(막1:35), 그러므로 우리도 습관에 따라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좋은 습관은 하루아

## 기도해야 회개하고, 주의 뜻 알 수 있고, 믿음 생기고, 순종할 능력 생겨 응답될 때까지 기도...몸에 배도록 훈련, 습관 반복되면 삶에 기적 일어나

같은 내용으로 세 번이나 밤을 새며 땀을 피로 번하기까지 기도하셨다(마26:38-45). 주님께서는 기도하면 복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요14:12-14).

1. 기도를 삼은 죄악이라 하셨다.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고 하신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삼상12:23)고 하시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고 기도하면 응답을 주시겠다는 그분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행위요, 또한 우리의 의무에 대한 태만한 영적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기도는 일을 소홀히 함은 죄가 되는 것이다. 기도가 끊어지면 영적인 맥박이 끊어진 것과 같다. 우리가 남보다 뛰어난 것은 없지만 남보다 많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이 있다. 주님은 "기도 없이 아무 것도 할 수 없다"(막9:29)고 하셨다.

부족하지만 내 경우에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 높고 험한 산을 찾다니면서 기도했다.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가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르듯 미친 듯이 며칠씩 물도 밥도 굶고 산 속에 혼자 있드려 울었던 적이 많다. 기도할 줄을 모를 때는 산에서 주기도문을 천 번을 외운 적이 있다. 물론 주님은 어느 곳이나 계시지

해야 회개하고, 기도해야 주의 뜻을 알 수 있고, 기도해야 믿음이 생기고, 기도해야 순종할 능력이 생긴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 기도가 본업이라고 생각한다? 누가 명령한가? 누가 능력자인가? 기도하는 자가 신령하고 능력있는 자다. 주님은 훌륭한 자를 찾지 않고 신령한 자를 찾으시며, 주님은 말 잘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고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신다. 고린도전서 4:19-20에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말씀하셨다. 기도는 성도의 본업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므로 예수 안에서 기적과 성공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2.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

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기도의 습관이 몸에 배이도록 훈련해야 한다. 기도의 습관이 반복되면 삶에 기적이 일어난다. 기도하는 삶이 곧 인생에서 맞보는 천국생활이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다 하셨으니(빌3:20), 분명 우리는 천국 시민이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천국 시민으로서 누리는 기쁨을 이 기도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것이다.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말이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하나님과 대화가 통하니 기도의 생활이 천국생활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어 통하는 것이 기도지, 아무리 미사여구를 구사하여 기도 내용이 좋고 유창하여 사람을 감동시켜도 하나님과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니다. 이것이 중요하다.

(7면에서 계속)

주일이라 불리는 날에 그 도시나 지방에 모든 사람들이 모이고, 사도들의 말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가능한 한 많이 읽힌다. 봉독자가 읽기를 마치면 대표자가 이러한 뛰어난 실례들을 모방하도록 우리를 권고하고 훈계하는 설교를 한다. 그 후 우리 모두는 함께 일어나 기도를 드리고... 떡과 포도주와 물이 전달되고, 그 대표자가 마찬가지로 힘이 닿는 대로 기도와 헌금을 바치고,

사람들은 아멘이라는 말로 동의한다"(67장).

2) 성경이 보인다 - 요한복음 1:1, 14

요한복음은 공관복음과 다른 관심과 표현방법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졌다. 그가 복음의 핵심이라며 소개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하필 '말씀'이라고 하였으며, 헬라어 원문에

는 '로고스'라 기록하였는지에 대한 궁극증을 갖게 된다. 요한이 복음을 기록한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전달하기 위함이었다.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의식하여 이런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다시 말해, 요한은 세속적인 개념과 사교의 방식을 사용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드러내려는 한 것이다.

우리는 요한이 말하는 '로고스' 또는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헬

라철학의 기초적인 사상을 이해해야 한다. 매우 역설적이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 세상의 학문 또는 지성과 벽을 쌓을 수 없다. 제한적으로 수용된 세상 학문의 내용과 방법론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반드시 성경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메일: covenantcho@yahoo.com

# 성품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교육학박사)

## 디지털 교육이 자녀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

세계적인 IT기업에 다니는 부모들은 어떤 교육을 중요하게 여길까? 미국의 최첨단 정보기술(IT) 산업의 메카로 불리는 실리콘밸리. 이곳에 있는 구글, 애플 등 대표적인 IT 기업들의 직원들은 과연 자녀들에게도 IT 교육을 강조할까?

전혀 그렇지 않다. IT 전문가들이나 마땅히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에 몰두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학교로 아이들을 보낸다. 그들이 다니는 학교에는 컴퓨터가 없는 것은 물론 스마트폰을 소지할 수도 없다. 종이와 연필 등을 사용할 뿐 아니라 독서 및 활발한 의사소통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좋은 인성을 배우고자 애쓴다.

반면 한국은 대부분의 교육자들과 학부모들이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서는 마땅히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야 한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 결과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들과 콘텐츠들이 넘쳐나고, 학생들은 학교, 학원, 가정 등에서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학습에 익숙하다.

국가의 교육정책 또한 스마트 교육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지난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는 '스마트교육 추진전략'을 발표하여 2015년까지 초·중·고 교과서를 디지털로 전환하여 보급할 것이라는 계획을 수립했으며, 현재 시범학교를 통해 디지털 교과서의 장단점을 연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과연 스마트 교육이 자녀들을 똑똑하고 지혜롭게 만들어 줄까?

한 초등학교에서 디지털 교과서로 수업을 진행했던 스마트 기기로 자료를 탐색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능력은 향상되었으나, 게임이나 SNS 등 '딴 짓'을 하고 싶은 유혹이 오히려 커져 집중력을 저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교과서가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약화시킨다는 분석도 나왔다.

하버드 대학 부속병원의 임상심리학자인 캐서린 스타이너 어데어(Catherine Steiner-Adair)는 스마트 교육이 아이들의 사고력 발달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즉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를 많이 사용할수록 우리 뇌는 인지 과정과 숙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는 채, 단지 외부의 자극에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데 익숙해진다는 것. 결국 단편적인 정보에 순응하는 데만 그치므로 사고력의 발달, 특히 창의적 사고력의 발달이 뒤쳐진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스마트 기기나 컴퓨터를 잘 다루는 아이들을 보면서 'IT 산품'으로 추켜세우는 건 무의미하다는 이야기가 된다.

무엇보다 성품교육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스마트 교육은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스마트 교육이 인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데 거름이 되는 '좋은 성품'을 길러줄 수 있을까 생각하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알다시피 좋은 성품이란 '갈등과 위기의 상황에서 더 좋은 생각, 더 좋은 감정, 더 좋은 행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영숙, 2005)이다.

이 좋은 성품을 형성하려면 교사와 학생,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밀하게 대화하고 나눔으로써 좋은 생각, 감정, 행동을 표현하고 연습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스마트 교육은 사람이 아닌 기계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그 기회를 차단해버린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빌 게이츠도 스마트 기기나 IT 기술이 교육의 성공을 이끈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실제로 자녀에게 하루에 45분 이상 컴퓨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책임감을 통해 지혜를 배우고, 가족 간에 충분히 대화를 나누는 것이야말로 스스로 좋은 생각, 감정,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러니 이쯤이면 우리도 스마트 교육에 대한 맹목적 호감을 잠시 멈추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성공적인 교육이 스마트 기기의 활용 여부에 달려 있다는 생각에서 물러서서, 아이들이 좋은 성품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해주는 교사와 부모의 성품에 달려 있음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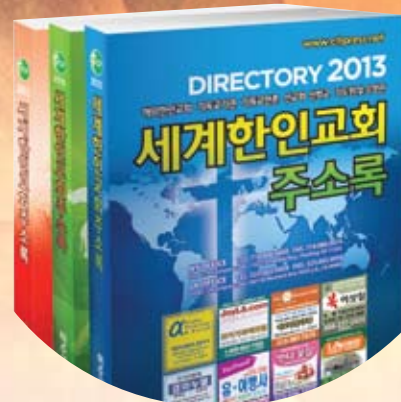
# 목사 청빙

1. 목사 및 부교역자
2. 사명감 있는 청년
3. 자격
  - 1) 장로교단에서 사역, 경험 있는 분
  - 2) 목회자로서의 소명의식이 투철한 분
  - 3)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 4) 운전 경험이 있고 운전가능한 분
4. 제출서류
  - 1) 이력서(사진첨부) 1통
  - 2) 자기소개서 1통
  - 3)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1통
  - 4) 목사 안수 증명서 1통
  - 5) 주민등록 등본 1통
5. 제출마감 **2015년 7월 31일까지 제출 요망**
6. 기타사항
  - 1) 우편접수 가능(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2) 1차 선임되시는 분에게 개별 통지해 드립니다.
  - 3) U.S.A 또는 CANADA 거주자 환영
7. 제출처 192-24 64 Circle #2B Fresh Meadows NY 11365  
뉴욕서울장로교회 한문수 목사 (718)423-0343

대한예수교 장로회 **뉴욕 서울 장로교회**  
목사 청빙 위원회

##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2016년 해외 한인교회 주소록 발간안내

리스팅 및 광고 9월말 마감



본지 미주크리스천신문이 매년 발행하는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이 2016년도 판 출간을 앞두고 리스팅과 광고디자인 작업 중에 있다. "2016 해외한인교회 주소록"은 전 세계 한인 디아스포라를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미주 전 지역 한인교회와 한국을 제외한 해외 한인교회의 주소가 수록돼 있다. 총 75개국에서 디아스포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인교회들과 미국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의 주소와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및 담임목사의 연락처정보를 게재한다. 또 교회가 속한 교단과 웹사이트 주소도 수록돼 있다. 이외에 선교단체 및 신학교 리스팅도 포함된다. 명실공히 전 세계 해외 한인교회와 한인교계의 주소를 담고 있는 본 주소록은 각 교회와 신학교, 기독교단체들의 광고도 게재하고 있다. 이번 "2016 해외한인교회 주소록" 리스팅 편집마감은 9월말이며 광고마감은 10월초까지 가능하다. 한인교회와 기독교단체, 신학교들의 리스팅을 9월말까지 본사로 보내면 된다.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목회서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허황된 현대 기독교



여승훈 목사

어거스틴은 키케로의 글을 읽으면서 그의 글을 던져버렸다고 한다. 이유는 키케로의 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가득 채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채웠느냐 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내면에는 굉장한 많은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 율법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그 율법을 향한 열심으로 충만하였다. 눈에 드러나는 구제와 봉사가 있었고 정기적이고도 규칙적인 기도와 금식이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에서 유대인들을 가득 채웠던 열정과 열심이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

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바울이 지적하는 올바른 지식이란 무엇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의 말씀 아닌가? 즉, 유대인들은 종교적 지식과 열심으로 그들의 삶을 채웠지만 그 속에 그리스도예수가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어거스틴이 키케로의 글을 던져 버렸듯이 그리스도께서도 유대인들을 가득 채웠던 종교적인 요소들을 던져 버린 이유는 그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오래전 휴가 기간 중에 텍사스 지역에 있는 매우 보수적인 어느 미국 대형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적이 있다. 설교자의 설교는 성경에 매우 충실하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끝부분에 가서 어떤 책을 들고 그 책에 나오는 짧은 간증이야기를 읽어주었다. 그 순간 설교 시간 가운데 가장 감동받는 회중들의 표정을 역력히 볼 수가 있었다. 필자는 그 순간 무릎을 탁 쳤다. 아하! 바로 이거구나. 사람들의 심리가 이런 감동스런 이야기, 연설 같은 시사성 이야기, 수필 같은 감수성 넘치는 이야기에 쉽게 젖어든다는 것이었다. 필자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사람들이 이 시간 왜 어떤 목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며 설교를 들어야 할까? 필자가 내린 대답은 너무나 분명하였다. 무엇 때문에 설교를 듣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 설교

에서 무엇을 기대하여야 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 이유는 성경 전체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의 중심이 되시고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증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의 토양이 된다는 사실을 아는가? 토양이 제대로 기경이 되어있지 않은 땅에 힘을 다하여 일년내내 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해보라. 가을철 수확기에 어떻게 되겠는가? 틀림없이 열매 없는 농사가 되고 말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토양을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당신의 내면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가득 채우는 일은 평생에 걸쳐서 해야 할 일이다. 기쁨이 사라졌는가? 마음이 불편한가? 평안이 없는가? 원망이 입에서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는가? 열정이 일어나지 않는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주는 진단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당신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토양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

리스도로 가득 찬 마음은 곧 옥토와 같아서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고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다. 당신에게 기쁨을 주시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당신에게 열정을 주시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당신에게 평안을 주시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당신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당신에게 치유와 회복을 가져다주시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당신에게 희망과 도전 정신을 주시는 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닌가? 정상적인 에너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에너지를 충당시켜 줄 수 있는 음식을 반드시 섭취하여야 한다. 만약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계속 일을 해나간다면 점점 지쳐만 갈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당신의 영혼의 에너지다. 그분을 섭취하지 않고는 단 하루도 온전한 영적 여행을 할 수가 없다. 혹 여행이 된다 하더라도 그 여행은 틀림

없이 윤택하지 않은 불행한 여행이 되고 말 것이다.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소개하였다. 정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 그리스도 예수는 사람들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고 심장이 펄떡 펄떡 박동하게 하는 신비로운 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끊임없이 그리고 또 끊임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눈을 고정시켜라. 기독교는 결코 허황된 길을 안내하지 않는다. 기독교가 안내하는 길은 너무나 분명하고 투명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길이다.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찬양 가운데 그리스도를 노래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고 봉사 가운데 그리스도를 보기 때문에 벅찬 감격이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가 빠진 그 무엇도 과감하게 던져버려라. 당신의 영혼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매일 매일 채워 넣어라. 그리고 그분을 향해 전심전력으로 달려가라.



미주한인여성목회 제7차 북미주연합컨퍼런스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 치유, 승리하자” 미주한인여성목회 제7차 북미주연합컨퍼런스

미주한인여성목회자협의회(회장 전희수 목사)가 주최한 제 7차 북미주 연합 컨퍼런스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캐나다 온타리오 잭슨포인트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십자가의 은혜”라는 주제로 진행된 컨퍼런스 개최예배는 김부의 목사 사회로 기도 문경옥 목사, 설교 하은숙 목사(“지도자의 영성과 자리관리”, 엡4:13), 축도 김드보라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어서 권캐더린 목사 사회로 미국과 캐나다 회원들의 자기소개와 환영 및 인사의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은 강사 하리라 목사(독일동부순례교회 담임)가 “십자가의 은혜”(고후12:7-10), “십자가의 죽음”(요12:24), “십자가의 치유”(고전5:21), “십자가의 승리”(고전11:1) 라는 제목으로 일일 말씀성회를 인도했다. 하리라 목사는 용서, 죽음, 치유, 승리의 메시지를 통해 참석 여성목회자들이 감격과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했으며 하나님의 꿈을 이뤄드리는 비전의 여성목회자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시간을 갖게 했다. 마지막 날 폐회예배는 김정숙 목사 사회로 기도 조상숙 목사, 살렘찬양단 특송, 설교 전희수목사, 헌금송 안경순 목사, 헌금기도 박은희 목사, 성찬 장경혜 목사, 축도 심상대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으로 하나 되게 하셨다.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고 용서하며 사랑받고 사랑하며 치유 받고 치유하며 시대적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비전의 사람이 되자”고 다짐했다. 전 목사는 “진정한 비전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자신에게 나온 야망을 분별해야 한다”며, “모세가 궁궐에 있었을 때가 아닌 80세 촌부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전했다. 뉴욕일원에 거주하는 여성목회자들은 캐나다까지의 왕복 20시간의 버스 안에서 말씀과 기도, 찬양, 생활정보, 건강정보, 웃음치료, 간증 등 도전받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유원정 기자)

순복음복미총회 총회장에 양승호 목사



제 40 차 순복음복미총회 정기총회 지난 5월 28일 서울 영산수련원에서 개최된 신임 총회장에 양승호 목사(사진·뉴욕순복음연합교회 담임)이 선임됐다. 또한 선거에 의해 2명의 부총회장과 지역별로 안배된 4명의 부총회장이 선임됐다. 부총회장에는 진유철 목사, 박광수 목사, 주권태 목

사, 안현 목사, 정홍은 목사, 이성자 목사, 총무 이정환 목사는 연임됐다. 신임 양승호 목사는 “교단의 위상과 회원들의 협력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복음세계선교회(총재 조용기 목사, 이사장 이영훈 목사) 산하 북미총회는 현재 12개 지방회 207개 교회에 목사 278명, 전도사 43명, 선교사 3명 등 325명의 교역자들이 소속돼 있다. (기사제공: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



플러신학대학원 목회학 박사원 컨퍼런스에서 엄예선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건강한 목회자, 건강한 교회” 주제 플러 목회학박사원 컨퍼런스 성황

플러신학대학원 한인목회학박사원과 소금과빛 목회자연구회가 공동주최한 2015 플러신학대학원 목회학박사원 컨퍼런스가 6월25일 오전 9시 본교 페이튼 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컨퍼런스는 △목사 바울의 설교와 목회/김세운 박사 △건강목회 현장론: 함생목회 이사 기/이정근 박사 △건강한 목회자가 갖추어야 할 점/엄예선 교수 등이 강사로 나섰다. 김세운 박사는 “바울은 신약성서에서 전체적으로 목회사역에 대한 설교와 관련해 설교자의 방향을 관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예”라고 설명하며, “바울은 자기이해와 목회의 목적뿐만 아니라 자신이 복음을 설교했던 방법을 다른 교회들의 다양한 필요에 적용하면서 관찰했다”고 말했다. 또한 “설교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아니지만 기독교 목회에서 중요한 요소다. 바울은 목회서신에서 복음을 삼기시키고, 다양한 상황 속에 존재하는 문제와 필요에 관해서 더 많은 가르침과 더불어 자시의 설

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며, 바울은 유일하지는 않지만 신약성서에서 전체적으로 설교자가 목회에 대한 설교를 어떻게 관련시켜야 하는지를 관찰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이라 말했다. 두 번째 강사로 나선 이정근 박사는 “함생목회는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함께 살고, 서로 살리며, 생명을 증진시키는 것을 기적으로 삼은 사상”이라 정의하며 “생명의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과 인간을 대표로 하는 피조물을 함께 생명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을 수직적 함생, 사람과 사람, 피조물과 피조물이 함께 생명을 증진시키는 것은 수평적 함생이다. 이 수직과 수평이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전한 함생을 이룬다”라고 설명했다. 세 번째 강의를 맡은 엄예선 교수는 “오늘날 목회자와 교회의 가장 긴급한 제1소명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외로움을 반영하며 성령의 열매, 의

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이다. 목회자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특별한 대접을 받지 않는 것, 그리고 목회나 삶에서 모든 판단이나 결정이나 행동을 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의 이 중계명에 기초한 하나님 나라 실현과 확장에 두며, 이 모든 것을 기독교윤리를 행동전반의 토대로 삼는 것”이라 설명했다. 그는 “가정의 건강을 강조하면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딤후5:8)를 근거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을 분리하지 말 것과 건강한 가정생활은 사역임을 명심해야 함을 당부했다. (박준호 기자)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목회자 연장교육세미나가 본교 강의실에서 열렸다

건강한 이민 목회...4개 분야 진행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목회자 연장교육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총장 폴리 박사)에서 주관한 한인목회자를 위한 연장교육 세미나가 지난 6월 15일부터 19일까지 1주간에 걸쳐 가든그로브에 소재한 본교 세미나 룸에서 진행됐다. 한인목회자들의 영적 재충전과 신학적 정체성 확립을 통한 건강한 이민목회를 감당토

록 하기 위해 개최된 동 세미나는 총 4차례로 나누어 진행됐다. 첫 날 이광진 교수의 ‘목회자의 성 윤리’를 시작으로 영광철 교수의 ‘현대 목회 사역과 성경 신학’, 김용준 교수의 ‘비교 종교학’, 그리고 특강 형식으로 김영철 목사의 ‘현대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 등 4개 분야

로 진행됐다. 외래 강사로 참여한 김영철 목사(정신건강가족미션 남가주 소장)는 현재 우리 주변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우울증과 조울증, 조현병(구 정신분열병)과 같은 각종 정신질환의 증세 등을 자세히 구분해 설명하면서, 자신의 임상 결과를 통해 특이한 회복의 과정들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김 목사는 오늘날 목회자들이 흔히 혼동하기 쉬운 정신분열증세와 귀신 들림 현상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무분별한 안찰과 내적치유 방법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해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는 목회자 연장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나누어 진행되며, 내년 1월에 개최될 동계 세미나는 하와이에서 1월 18일부터 1주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김용철 교수(714-636-1722)에게 하면 된다. (기사제공: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영 김 주하원의원 공화당 FMP 이사 선임 “아메리칸 드림 이루기 도움 최선”

지난 2014년 11월 선거에서 현 의원을 거의 10% 차이로 몰리치고 주하원의원에 당선된 영 김 캘리포니아 주하원의원이 인종적으로나 사회 환경 면에서 보다 더 다양한 공화당 후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FMP(Future Majority Project/미래다수당프로젝트)의 이사로 선임됐다. 공화당은 부유층 백인남성들이 주도하는 당으로 인식돼왔는데, FMP는 보다 더 다양한 후보를 발굴하고, 아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화계 정치단체다.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민주당의 절대다수당(전체의석의 2/3) 지위를 무너뜨린 영 김 주하원의원은 “FMP에서 저를 주목하고 지원해

야할 14종의 한 명으로 선정해준 것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선거자금을 모금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으며, “새로 등록하거나, 다른 의견을 가진 유권자들과 대화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만 지역구의 유권자들과 비슷한 가치관이나 경험을 가진 공화계 후보들을 발굴하고, 또 지속적으로 당선시킬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적으로 유권자들에게 다가갈 수가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민자 가정의 딸로서 내 부모님은 내가 보다 나은 환경에서 교육받으며 성공할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미국에 이민 왔고, 이것은 한인 이민자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아메리칸 드림을



영 김 주하원의원

성취하기 위해 모든 이민자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고 영 김 의원은 덧붙였다. 영 김 의원은 “앞으로 보다 많은 소수계 공화당 후보들이 출마하고 또 당선될 수 있도록 힘을 합할 것이며, 공화당의 가치관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와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며, 공화당이 이민자들에게 아메리칸드림을 이룰 수 있는 희망과 꿈을 주는 정당으로, 보다 나은 미국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기사제공: 가주 65지구 하원 사무실)



# 동부교계 게시판



##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 17회 정기총회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KCCA) 제 17회 정기총회가 7월 6일(월) 오후 5시부터 8일(수) 오전 10시까지 조지아 주 애틀랜타 잔스크리교회(담임 이승훈 목사)에서 열린다. 등록비는 100달러.

▲문의: (404)488-6868/최낙신 목사, (704)281-0080/박형우 목사

## 퀸즈장로교회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7월 15일(수) 오후 8시 강명식 찬양사역자를 초청, “축복이 흐르는 찬양예배”를 드린다.

▲문의: (718)886-4040

## 목사 및 부교역자 청빙

뉴욕서울장로교회(담임 한문수 목사)가 담임목사 및 부교역자를 청빙한다. 자격은 사명감이 있으며 장로교단 사역경험자, 선교사 소명의식 투철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으며 운전가능한 자로 이력서(사진첨부), 자기소개서, 재학/졸업증명서, 목사임직증명서 등.

▲문의: (718)423-0343

## 부목사 청빙

콜롬비아한인장로교회(담임 이상현 목사)에서 부목사를 청빙한다. 청빙요건은 PCUSA 교단 소속 또는 가입 가능한 정규신학대학원 졸업자로 미국 시민권/영주권자, KM목회 경험자, MIF참조, 이력서(한영), 학위증명서, 목회자 추천서 2통, 신앙고백 및 목회철학서 1통, 최근 설교 CD/DVD, 2회분 혹은 웹사이트주소. 마감은 8월 8일. 교회웹사이트

www.kcpcsc.org, 이메일 info.kcpcsc@gmail.com

▲문의: (803)765-2500

## 담임목사 청빙

재미한인예수교장로회(고신) 소속 알칸사제일장로교회가 담임목사 청빙한다. 자격은 정규신학대학원을 졸업(M.Div)하고 본 교단 소속이거나 가입 가능한 자로 이력서, 목사안수 증명서,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목회계획서, 본인 및 가족 소개서, 가족사진, 설교 동영상 CD 2개가 필요하다. 서류마감일은 7월 31일(금).

▲이메일: sungkidon@hotmail.com



## 살롯장로교회 어린이 여름성경학교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근 목사)가 주최하는 어린이 여름성경학교가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열린다. 동 교회는 교육부서가 매주 준비모임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며 금년에도 많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양육하기 위해서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동 교회는 이번엔 초등부를 졸업한 전하늘, 중등부를 졸업한 이종훈, 패트릭, 고등부를 졸업한 전바울, 전시몬의 졸업을 축하하며 선물도 전달했다. (기사제공: 살롯장로교회)

## NJUCA고등학교 제10회 졸업식...18명 졸업

### 졸업생 SAT평균 1,716점, 전원 4년제 대학 진학

지난 2004년 기독교 영성을 중심으로 소수정예의 미래 기독교 리더 양성을 목표로 미주에서 최초로 한인에 의해서 세워진 정규 사립 중 고등학교

뉴저지크리스천아카데미(NJUCA, New Jersey United Christian Academy, 이사장 신정하 박사, 교장 Tim Costello) 제 10회 졸업식이 지난 19일 저녁 6시, 중부 뉴저지 크립리지에 위치한 본교 강당에서 열렸다.

졸업생과 재학생 교사들과 학부모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졸업식은 팀 카스텔로 교장의 사회로 재학생 새라 우, 킴벌리 맥코이, 베로니카 파스쿠알 양 등의 무반주 미국국가 중창으로 시작돼, 후원회장 나정용 목사의 기도, 설립자 겸 재단이사장 신정하 박사의 축사로 이어졌다.

졸업식 연사로 단상에 선 뉴저지 갈보리처치의 폴 잭슨 목사는 “내가 중심이 되는 삶을 살기보다는 모든 것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삶을 살자”는 주제로 졸업생에게 중요한 삶의 지표가 될 말씀을 전했다.

이어서 페이션스 보스턴, 세인 브라운위스, 레베카 페리, 조슈아 시 등 졸업생들이 고별사가 있었고 18명 졸업생 한명 한명의 삶을 뒤돌아 볼 수 있었던 비디오 프레젠테이션이 이어졌다. 졸업생들은 이어서 한 사람씩 단상으로 올라와 졸업장을 수여 받았다.

식이 끝난 후 졸업생들과 참석한 축하객들은 교정에서 축하의 덕담을 건네며 기쁨을 나눴다.

올해 졸업한 18명의 졸업생들은 SAT 평균 1,716점을 기록했고 총액 67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으며 전원이 4년제 대학에 진학했다. SAT 1,716점의 평균점수는 공립학교로 환산하면 2013년 기준으로 뉴저지 주에서 24위에 해당되는 우수한 성적이며 뉴저지 주의 한인들이 선호하는 학군 좋은 지역의 다른 많은 공립 고등학교들의 평균성적보다도 높은 점수다. (기사제공: NJUCA)



NJUCA졸업식에서 졸업생과 참석자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



2015할렐루야대회가 지난 26일부터 뉴욕프라이미스교회에서 소강석 목사(왼내)를 강사로 열렸다.

## 연합과 회복...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오라”

### 2015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 강사 소강석 목사

뉴욕교계 최대 행사인 할렐루야 대뉴욕복음화대회가 소강석 목사를 강사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사흘간 뉴욕프라이미스교회에서 열렸다.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오라”(삼하6장)는 주제로 열린 대회에서 강사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는 “예수가 소망이다”(행16:6-10), “교회여 연합하라”(엡1:22-23),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오라”(삼하6:13-16)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첫날은 이봉삼 목사 사회로 월드 밀알선교협창단의 경배와 찬양, 대회사 이재덕 목사, 특별찬양 NYPC Brass Quintet, 대표기도 김석형 목사, 성경봉독 이대연 장로, 찬양 뉴욕장로교회 찬양대, 특별기도 신현택 목사 허윤준 목사, 설교 소강석 목사, 특송 여현구 교수, 헌금기도

김전 목사, 헌금특송 뉴욕목사합창단, 광고 한기술 목사, 축도 이만호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소강석 목사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다. 예수님만이 인생의 진정한 기쁨이요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모든 축복의 길이 되신다”라는 요지의 말씀을 전하면서 간증과 웃음을 선사했다.

둘째 날은 김재열 목사의 사회로 뉴욕프라이미스교회의 경배와 찬양, 장학금 전달식(롬아일랜드연합 감리교회 3중창), 특송 전운대 목사, 기도 황영송 목사, 성경봉독 이주의 장로, 찬양 뉴욕프라이미스교회 찬양대, 축시낭송 조희호 목사, 특별기도 전희수 목사, 윤오성 목사, 설교 소강석 목사, 특송 박주옥 목사, 헌금기도 박영진 장로, 헌금특송 뉴욕장로성가단, 광고 권캐더린 목사, 축도



할렐루야대회 대미를 장식한 세미나에서 소강석 목사가 강의를 인도하고 있다.

## “생명나무목회, 창조문화’ 로 목회하라”

### 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 강사 소강석 목사

2015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마지막 순서로 29일 목회자 및 평신도지도자 세미나가 소강석 목사를 강사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소강석 목사는 “생명나무목회, 창조문화”(창2:16-17)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인도했다.

세미나는 장석진 목사 사회로 뉴욕퀸즈교회의 경배와 찬양으로 시작돼, 허길 목사의 환영사, 기도 안창의 목사, 특송 뉴욕사모합창단, 특송 박주옥 목사, 세미나 소강석 목사, 특별찬송 연주 유상열 목사, 감사말 및 기도 이재덕 목사, 광고 김희복 목사, 축도 한재홍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허길 중창회장단 회장은 “뉴욕이 세계의 중심이지만 한인들에게는 거친 광야와 같다”며, “한민족의 전사요 투사로 고군분투하는 뉴욕목회자들에게 화합과 연합의 메시지를 준 소강석 강사목사에게 감사하며, 동성애 등 모든 문제의 핵 속에 있는 목회자가 있다. 난제 해결에 용기와 희망을 준 메시지를 통해 주어진 난관에 대처해나가자”고 말했다.

소강석 목사는 “한국교회가 현재 위기상황에 봉착했다”며, “목회자는 성경을 통달하고 성격적 시대관과 가치관을 가지며 역사적 안목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26일 결정된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헌 결정

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미국교계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소 목사는 자신의 목회가 ‘공목회’라며 ①교회의 내적 영향 강화에 집중하고 ②교회 분위기를 살리며 ③교회를 예뻐하고, 신앙의 원리를 생명나무로 바꾸고 ④모든 교회 조직이 생명의 조직, 창조적인 문화로 조직하고 ⑤목회에 티보엔진을 달아라 ⑥환경과 시대 변화에 대응하라 등의 주제로 2시간 30분에 걸쳐 열강했다. (유원정 기자)

김남수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소강석 목사는 교권싸움에 치열했던 동로마제국의 멸망을 설명하며 “교회는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공동체”라며 “교회가 하나 될” 것을 강조했다. [설교전문 4면]

셋째 날은 문석호 목사의 사회로 퀸즈장로교회의 경배와 찬양, 기도 김성국 목사, 특별찬양 소프라노 유경화, 성경봉독 이상호 집사, 찬양 퀸즈장로교회 찬양대, 특별기도 김원기 목사, 조원태 목사, 설교 소강

석 목사, 특송 여현구 교수, 헌금기도 이병홍 목사, 헌금특송 뉴욕권사선교협창단, 감사패 증정(소강석 목사, 프라미스교회, 김전 목사, 재미장외, 중앙장외), 공로패 증정(김용걸 신부, 김승희 목사), 선언문 낭독 이종명 목사, 광고 김희복 목사, 축도 김승희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소강석 목사는 “잃어버린 법계를 찾아온 다윗을 하나님은 아람에게 보냈다”며 다윗의 의협심에 대해 강조했다. 또 “법계를 가져올 때 다윗의 잘못된 자기중심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오벵에돔같이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며 이 시대에 다윗이 돼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자”고 역설했다.

화합과 회복을 강조한 2015할렐루야대회를 주최한 뉴욕교회는 마지막 날 대회선언문에서 미국이 청교도정신으로 돌아오는데 앞장서며, 이를 위해 예배와 선교에 최선을 다하며, 남북관계 등 복음적 화해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과 사명완수에 전심전력하고 진리의 말씀에 근거 이단 세속화 동성결혼 등에 대처할 것을 대해 언급했다.

한편 같은 시간 프라미스교회 체육관에서는 조 F. 김 목사를 강사로 어린이대회가 열렸다. (유원정 기자)



할렐루야대회 강사 소강석 목사 환영 기자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 2015할렐루야뉴욕 복음화대회 강사 소강석 목사 환영 기자간담회

뉴욕교협(회장 이재덕 목사)이 마련한 2015할렐루야뉴욕 복음화대회 강사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담임) 환영 기자간담회가 대회 당일인 26일 오전 9시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열렸다.

전날 저녁 뉴욕에 도착한 소 목사는 “오늘날처럼 반기독교 정서와 세력들이 교회를 공격하는 때가 없었다. 교회가 연합해 힘을 결집해야 하는데 오히려 반대편상을 보이고 있다”며, “이번 할렐루야대회로 뉴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바란다”고 말하고 “이번 대회는 공식적이면서도 통시적인 대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희복 총무 사회로 이재덕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문석호 준비위원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소강석 목사의 인사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강석 목사 외에 기자 2명과 새에덴교회 찬양사역자 2명 등 11명이 동행했다. (유원정 기자)

강사로 선 소감에 대해 소강석 목사는 “2006년 당시에는 패기와 열정이 앞섰다. 50대가 된 지금 더 성숙한 삶과 인격을 통해 개별적 적응에 집중하기보다 연합에 초점을 두겠다. 첫날은 무장해제로 회복의 기쁨과 감격, 둘째 날에는 연합으로 미래를 대비하고 셋째 날에는 잃어버린 법계를 찾는 것에 대해 메시지를 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희복 총무 사회로 이재덕 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문석호 준비위원장의 인사가 있었으며 소강석 목사의 인사 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소강석 목사 외에 기자 2명과 새에덴교회 찬양사역자 2명 등 11명이 동행했다. (유원정 기자)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www.lapioneertour.com

P.I.O.N.E.E.R P.I.L.G.R.I.M T.O.U.R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대표전화 714-351-0124

안녕하세요!  
저희 성지전문 파이오니아 여행사에서는 금년 가을에 이스라엘과 소아시아를 아우르는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흔적과 바울사도의 행적을 한꺼번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따로 두 번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한번 가실 비용으로 성지 4개국을 다녀오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특별 코스**  
이스라엘과 소아시아를 아우르는 코스 **요르단/이스라엘/터키/그리스 13일** \$3999 (9월말 마감)  
10월 12일 출발 - 10월 24일 도착

여행상품 · 일정	
<b>이스라엘, 요르단(9박 10일)</b> <small>* 출발일: 2016년 2월</small>	\$2,799
<b>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10박 11일)</b> <small>* 출발일: 2016년 3월</small>	\$2,899
<b>요르단, 이스라엘, 터키(10박 11일)</b> <small>* 출발일: 2016년 4월</small>	\$2,899
<b>터키, 그리스(9박 10일)</b> <small>* 출발일: 2016년 4월</small>	\$2,799

※ 유류할증료, 항공세 포함  
※ 비자비, 출입국세는 별도  
※ 여행자 보험은 옵션

**714-351-0124** 성지전문 15년의 경력  
함께 하면 은혜스러운 순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PIONEER PILGRIM TOUR**  
새로운 성지순례의 지평은 연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 주소: 17510 Pioneer Blvd, #210 Artesia, CA 90701  
\* E-mail: choigh1115@gmail.com, choigh1115@hanmail.net \* 파이오니아 사무실: FAX: (562)403-3363





미주밀알서부지단 연합 사랑의캠프가 'Let's See the World!' 주제로 UCSB에서 열렸다

### 2015 밀알 서부지단연합 사랑의 캠프 'Let's See the World!' 주제 500여명 참가

미주밀알선교단(단장 이영선 목사)에서는 매년 여름 남가주, 북가주, 시애틀, 밴쿠버 밀알 등 서부지단 연합으로 '제17회 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사랑의 캠프'를 'Let's See the World!'라는 주제로 25일부터 27일까지 UC산타바바라에서 상황리에 개최했다. 참가자와 봉사자들 모두 함께 500여명이 참가한 사랑의 캠프는 법교회적인 찬양선교팀 PPOG와 청년자원봉사팀TRAC의 프로그램 지원을 받는 등 모든 밀알의 사역자와 스텝, 자원봉사들이 한마음이 돼 미주 최대의 발달장애청소년 서머캠프를 진행했다. 특별히 지난 2013년 캠프 때부터 실시해 큰 호응을 받았던 세족식이

첫날 남가주밀알선교단 이사장 남성수 목사(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담임)의 인도로 진행됐다. 봉사자가 장애인의 발을 닦아줌으로써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다운 사랑을 직접 체험하며 이를 통해 장애, 비장애의 차이를 초월해 모두가 하나 되는 공동체적 사랑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 "World Travel" 코너를 통해서 아프리카, 중국, 멕시코, 한국, 미국 등 각 나라의 문화와 전통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 등 2박3일 동안 봉사자들과 장애인 친구들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됐다. (기사제공: 밀알 서부지단연합)



제56회 한인기독교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주제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한인기독교합창단 제56회 정기연주회 성황

한인기독교합창단(KCCS 지휘 이경원) 제56회 정기연주회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라는 주제로 28일 저녁 7시 30분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KCCS 명예단장 백경환 목사는 "이번 연주회는 복음성가와 CCM, 찬양곡들이 못볼처럼 예배 속에 들어와 전통성가와 찬송가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이때에 전통성가와 찬송가 편곡들을 골라 발표하는 특별한 자리였다"고 말했다. 백 목사는 "특별히 이경원 신임 지휘자가 영입됐다. 이 지휘자는 실력과 신앙과 열정으로 단원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있어 앞으로 KCCS가 어떻게 발전해나갈지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이경원 지휘자는 "KCCS가 31주년 됐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면 두 번째 세대를 시작하게 되는 셈이다. 그 출발점을 찬송가에서 찾

으려고 했다"며, "이번 연주회에서 불러지는 찬송가들은 평균연령 60세에서 뛰어넘어져 나오는 땀 냄새 나는 간증들이며, 눈물 섞인 찬송가들이다. 이 찬송가들이 우리마음에 떠나지 않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차광일 목사(한빛성결교회) 기도로 시작된 정기연주회는 회중들과 함께 '다 감사드리세', '온 천하 만물 우리라', '햇빛을 받는 곳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등의 찬양을 드렸다. 또 소프라노 최정원 씨, 올겐리스트 서기향 씨가 출연해 아름다운 찬송을 선사했으며, KCCS 단원 송대영 집사, 이영덕 권사, 송선에 권사가 간증했다. 이어 존 루터의 '글로리아'를 KCCS와 오케스트라가 함께 연주해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이날 연주회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를 앰블곡으로 부른 후 백경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 6.25한국전쟁 제65주년 기념 추모예배

남가주한인목사회(회장 백지영 목사)가 주최한 6.25 한국전쟁 제65주년 기념 추모예배가 6월25일 오후 6시 한미장로교회(담임 이운영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백지영 목사는 기념사에서 "우리 조국이 누리고 있는 경제적 성장과 자유는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여러 우방들의 고귀한 희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언급하며, "반쪽으로 분단되어 동족과 가족이 서로 헤어져야 했던 전쟁의 비극은 65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흘러가고 있다. 이

별의 아픔을 기억하며 평화로운 남북통일이 이루어지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이날 예배는 이운영 목사가 '6.25가 한국교회에 미친 영향'(시 119:67-71)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이태환 목사(남가주원로목사회 전 회장)가 축도했다. 또한 강부웅 목사, 배수호 목사, 강지원 목사, 데이비트 목사, 류당열 목사, 김재울 목사, 정종운 목사가 특별 기도를 인도했다. (박준호 기자)



갈보리민음교회에서 열린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김형국 나들목교회 담임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 '청년의 신앙, 하나님나라의 복음' 갈보리민음교회 부흥회, 강사 김형국 목사

갈보리민음교회(담임 강진웅 목사)는 서울 나들목교회 담임인 김형국 목사를 강사로 초청, 부흥회를 26일부터 28일까지 '청년의 신앙, 하나님나라의 복음'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개최했다. 김형국 목사는 "한국교회가 많이 힘들다하고 이민사회 교회는 더 어렵다고 하지만 적당한 상황 속에서 건강한 교회는 자라나고 있다. 이러한 교회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으로 집회에 참석했다"고 말했다. 강진웅 목사의 인도와 원하트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의 아름다운동행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둘째 날 저녁집회는 강신문 장로가 기도했으며 김형국 목사가 '하나님 나라와 교회'(엡1:23)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김형국 목사는 "하나님나라는 이미 시작돼 가열 차게 진행되고 있다"며, "교회가 힘들다고 하지만 교회가 되지 않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다. 교회는 예수님께

서 세우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언급하고 "교회에서 문제 일으키는 자들은 샅꾼이거나 영적인 어린아이들"이라 말했다. 김 목사는 "전도는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이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전도를 하지 않는 것은 상대방이 중요하지 않아서"라 지적했다. 김형국 목사는 첫날 저녁 '하나님 나라와 구원'(막1:15), 둘째 날 새벽 '하나님나라 백성의 기도'(마 6:9-13), 주일1부와 2부 '예수, 생명의 밥'(요6:33), 주일3부 '하나님 나라와 청년'(행2:17)이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한편 김형국 목사는 29일과 30일 양일간 본 교회에서 열린 하나님나라복음DNA 네트워크에서 개최한 '제4기 미주심화과정 하나님나라 복음으로 교회세우기 세미나'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박준호 기자)



미주장신대는 주님세운교회와 웨스트힐장로교회에 후원금을 전달받았다. 사진은 주님세운교회 박성규 담임목사가 이상명 미주장신대 총장에게 후원금을 전달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 미주장신대에 3만 달러씩 후원 주님세운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총장 이상명 박사)는 최근 한인사회의 대표적 두 교회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와 웨스트힐장로교회(담임 김인식 목사)로부터 각 3만 달러씩의 후원금을 받았다. 지난 6월 15일 박성규 목사가 본교를 방문했으며, 25일에는 웨스트힐장로교회 전용기 장로가 방문했다. 두 교회는 그동안 본교를 지속적으로 후원했으며 김인식 목사는 직전 이사장, 박성규 목사는 현 이사장이다. 학교측은 "전 세계적으로 신학교육기관이 처한 어려운 상황 속에

서 본교가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학교로 더욱 발돋움할 수 있게 됐다"며 "본교가 선교회에서 탈피해 1세대 한인 신학교에서 탈피해 1.5세대와 2세대와 3세를 아우르는 다세대 신학교(multi-generational seminary)로 발전해 미주 내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내 다민종 교회를 섬길 사역자들과 세계 선교 현장에 사역할 선교사들을 양성하는 학교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이전 감사예배 애플벨리에 부지 에이커 자체 예배당 구입

빅토빌예수마음교회(담임 김성일 목사)가 새롭게 자체 건물을 구입하고 28일 오후 5시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김성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이용욱 목사(하나크리스천센터 담임)의 찬양인도와 서철원 목사(얼바인 헤브론교회 담임) 기도, 마원철 목사(리페어서번트 대표) 특별찬양에 이어 김현수 목사(토랜스선한목자교회 담임)가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고후5:14-21)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만이 그리스도인 삶의 원동력이므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백지영 목사과 원사과 교수,

유영택 선교사가 축사를, 고승경 목사, 오세훈 목사의 권면이 있는 후조광수 선교사의 축도로 감사예배를 마쳤다. 빅토빌예수마음교회는 김성일 목사가 2002년 6월 빅토빌에 개척해 그동안 다민족교회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빅토빌 지역복음화와 세계선교, 이단퇴치를 위해 사역을 감당해오며 예배당 문제를 어려움을 겪던 중 지난 4월 애플벨리 지역에 1에이커의 부지와 자체 예배당을 구입, 이전 감사예배를 드린 것이다. 주일예배는 1부 오전 8시, 2부 오전 11시, 3부 오후 1시 30분에 드리며, 영어예배는 오전 11시에 드린다. www.jesusmind.net 전화: (760)220-3263 (이성자 기자)

## 서부교회게 게시판 west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열린세미나 찬양대원을 찾아가는 지역 열린 세미나가 전현미 선생(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지휘자, 남가주한인교회음악협회총무)을 강사로 7월 12일(주) 오후 4시30분 라구나힐스 연합감리교회(담임 립학준 목사)에서 개최된다. 또한 세미나 개최를 원하는 목회자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문의: (310)381-9835

남가주리더교회 열매교회 통합감사예배 남가주리더교회(담임 김요섭 목사)와 열매교회(담임 안국련 목사) 통합감사예배가 7월 5일(주) 오전 11시 열매교회당(3960 Wilshire Blvd, #505)에서 열린다. 한편 안국련 목사 추대 및 김요섭 목사 취임예배는 오는 12일(주) 오전 11시에 열매교회에서 열린다. ▲문의: 213-380-0071

나성영락교회 2015 이민목회자 가족수련회 나성영락교회(담임 김경진 목사)는 2015 이민목회자 가족수련회를 12일(주) 오후부터 14일(화)까지 미러클 스포링스 리조트&스파에서 갖는다. ▲문의: hyukim@chla.usc.edu (영문), bellsky1@naver.com(한글)

박모세 목사 독창회 살롱장애인선교회를 운영하는 박모세 목사가 살롱장애인선교회 연례기금모음 행사로 '제 12회 휠체어사랑이야기 콘서트'를 개최한다. 12일(주) 오후 7시 월서연합감리교회에서 개최되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박모세 목사를 비롯해 조이여성합창단, SCDC수화 찬양팀, SDM찬양팀이 출연한다. 살롱 장애인선교회는 그동안 세계 각지의 장애인 4만5천명에게 휠체어를 지원해오고 있다. ▲문의: (323)731-7724



사랑의빛선교교회에서 열린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초청 간증집회에 송솔나무 선교사가 연주하고 있다

### "한여름밤의 행복한 꿈" 주제 사랑의빛선교교회, 송솔나무 초청 간증집회

사랑의빛선교교회(담임 유대혁 목사)는 '하나님의 연주자' 송솔나무 초청 간증집회를 '한여름밤의 행복한 꿈'이라는 주제로 26일 저녁 7시45분에 개최했다. 드라마 허준, 이산, 동이의 OST 연주자로 알려진 풀꽃연주자 송솔나무 선교사는 방황기였던 어린 시절 이야기에서 풀꽃모습까지를 진솔하게 풀어냈다. 송 선교사는 "어린 시절 누저지로 이사를 갔다. 당시 학교에서 아시아인은 3명밖에 없었다. 당시 불체자로 있었는데 유일한 희망은 F1 비자를 취득해서 불체자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이었다. 집안의 희망은 누나였다. 누나는 공부를 잘했지만 나는 그렇지 못해 늘 집안에서 말썽장이로 생각돼졌다. 학교에서는 놀림을 당하며 어머니한테도 맞으며 살았다. 그래서 내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인줄 알았다"고 간증했다. (박준호 기자)

그는 "어느 날 플릇을 불 기회가 생겼는데 그것을 본 선생님이 용기를 주셨다. 그리고 줄리어드 예비학교에 입학하고자 했지만 가족의 비웃음을 샀다. 그러나 오디션 후 10일 만에 기적적인 합격통지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됐다는 소식에 내 인생은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송 선교사는 "미치한 악기라도 어떤 연주자가 연주하느냐에 따라 악기 소리가 달라지듯,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는 가장 값진 삶을 살게 된다"고 말했다. 송 선교사가 출신한 3번째 앨범은 일본선교를 위해 제작됐다. 송 선교사는 현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6년 미서부 지역 순회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박준호 기자)



희빅토빌예수마음교회 이전감사예배를 인도하고 있는 본교회 담임 김성일목사



# “동성애는 죄, 음란문화 즉각 중단해야”

## 교계 1만여명, 서울 곳곳서 동성애 반대 집회

“여러분을 사랑해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동성애는 에이즈 고(高) 위험군,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28일 서울 중구 덕수궁 대만관 앞에 모인 기독교인과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리쬐는 햇볕 탓에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구호는 멈추지 않았다. 자녀들을 동성애로부터 지켜달라고 부르짖는 통성기도가 한동안 이어졌다.

이들은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회부장 소강석 목사)가 개최한 ‘동성애조장 중단 촉구 한국교회교단 연합예배·국민대회’에 참석한 이들이다. 맞은편 서울광장에서 성소수자들의 행사가 2015 제16회 퀴어문화축제에 퍼레이드가 열렸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牧사는 인사말에서 “에이즈 확산의 주범인 동성애는 신앙·윤리적으로 옳지 못한 병명만 ‘죄’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회장은 “퀴어축제와 같은 반성경적이며 음란한 문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며 “그럼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동성

애에 빠진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저들이 회개하도록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온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보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국민메시지를 남긴후 한국교회 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양병희 목사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인해 온 나라가 격정하고 있는 이때에 동성애자들은 벌거벗고 춤추며 음란한 퍼레이드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누군가의 인권을 억압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고,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도와주려는 것”이라며 “만약 동성애자들이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두고 방조한다면 이 나라는 성적으로 방탕하게 되어 결국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동성애 찬성론자들이 퀴어축제를 열어 동성애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을 모으려는 것은 여세를 몰아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전 총회장 최낙중 목사는 ‘순리를 역리로

쓰는 사람들’(롬 1:26~27)이란 말씀을 전했다. 최 목사는 지난해 오월례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의 반동성애법 제정을 예로 들며 “당시 무세베니 대통령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반동성애법을 제정하면 4억 달러의 원조를 끊겠다’고 경고한 상황에서도 ‘우간다를 지켜주고 구원하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동성애 금지법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최 목사는 “무세베니 대통령은 동성애로 인해 가정, 사회, 국가의 존망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목격했다”며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55개 나라들 중에 이미 38개 나라가 반동성애법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는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 로마시민 중 이교도들은 동성끼리 성관계를 맺으며 성적으로 문란한 상태였는데, 이는 순리로 싸울 성을 역리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목사는 “지난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애 결혼을 합헌으로 선포하며 성경에서 금한 가증한 죄를 옳은 일이라고 규정했다”며 “

이들이 더 소수자들”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의 인권을 유엔을 비롯해 각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옹호란 명목 아래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의 탈동성애 단체들은 탈동성애국제연맹을 결성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탈동성애국제연맹을 발족하고 탈동성애 인권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동성애 규탄 시위를 하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동성애자로 살다가 ‘탈동성애’ 인권운동가로 변신한 톰슨 대표는 이날 탈동성애 인권청년포럼 기조연설에서 자신의 탈동성애 경험과 사

성을 역리로 쓰는 것을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하는 죄로 파멸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나라사랑&자녀사랑운동대(조직위원장 송준길 목사)와 에스더기 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회원들도 ‘생명·가정·효(孝) 페스티벌’을 열고 동성애 조장에 반대하는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에 힘을 보탤다. 대책위에는 한기총 한교연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황순원 목사) 미래목회포럼(대표 이윤석 목사) 한국교회연회(대표 유만석 목사) 등이 참여하고 있다.

선민네트워크(상임대표 김규호 목사) 대한민국의호국교회연합회 대한민국의기독교총연합회 전국유림총연합회 등 각 종교계가 참여한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는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동성애자에 대한 진정한 인권은 동성애의 폐해로부터 탈출하도록 돕는 것”이라며 탈동성애 인권보호를 위한 행진을 펼쳤다. 20여개 기독교인민단체들로 구성된 ‘탈동성애인권기독교협의회’도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리 퍼레이드와 동성애 치유상담 캠페인’을 전개했다. 경찰은 이날 밤늦도록 진행된 동성애 반대 모임에 1만명 넘는 인원이 참석했다고 추산했다.

# “北 김국기 선교사 등 무기징역 선고 규탄”

## 교계 25개 단체, 북한 억류자 석방촉구협 성명

선민네트워크와 기독교싱크탱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등 25개 단체로 구성된 ‘북한 억류자 석방촉구 기독교인민단체협의회’는 북한이 김국기(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중앙파송) 선교사와 최준길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을 강력 규탄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이들의 헌신적 북한동포 돕기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간첩 혐의를 씌워 억류하고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참으로 비인권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은 그동안 통상 법률적으로 제공돼야 할 가족면담, 변호인접견 등과 같은 인도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북한 당국은 두 사람은 물론 함께 억류돼 있는 임현수 목사, 김정우 선교사, 뉴욕대 주원모 학생도 즉각 석방하라”면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석방을 위해 적극 노

력하고, 유엔은 억류자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한 국제적 활동을 즉각 진행하라”고 주문했다.

북한은 23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미국과 남조선 괴뢰 패당의 조종 밑에 반공화국 정파 모략행위를 감행하다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들인 김국기 최준길에 대한 재판이 최고재판소에서 열렸다”며 “이들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 언도됐다”고 발표했다. 북한인 조지는 같은 날 서울에서 유엔 북한인권사무소가 개소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예장합동중앙 총회장 조갑문 목사는 “남을 돕는 것을 천적으로 여긴 김 선교사에게 간첩 혐의를 씌우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북한 당국은 김 목사를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목사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김 목사의 무사송환을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 구세군 150주년기념 국제대회

## 7월 1-5일 런던, 한국구세군 참여

한국구세군(사령관 박종덕)은 1-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구세군 150주년 기념 국제대회’에 참여했다. 국제대회는 구세군 150년 역사를 회고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120개국 구세군이 참여하며 한국에서는 박종덕 사령관 부부와 서울후생원 사물놀이팀 등 48명이 참석했다.

구세군은 전 세계 구세군이 동일한 사명과 비전을 이루기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로 대회 주요 일정을 구성했다. 국제연합예배와 국제사관회, 국제여성대회, 21세기의 신앙과 사회정의에 대한 세미나, 구세군 신학 세미나 등이 열렸다. 또 20개국 구세군 공연단의 공연, 버킹엄 궁전 앞 거리행진, 구세군이 시작된 런던 동부 지역에서의 기념예배, 구세군 전시장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

도 진행했다.

김병윤 해외선교담당 사관은 “구세군이 과거와 현재에 이룬 하나님의 사역을 회고하는 동시에 미래를 위한 비전을 새로이 발견하는 축제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전 세계 구세군 구성원 모두가 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더 효과적으로 감당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865년 런던 동부에서 출발한 구세군은 현재 전 세계 126개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1947년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를 받아 언어 종교 인종 지역을 뛰어넘어 활동하는 국제구호개발기구로 자리잡았다. 한국에는 1908년 전래됐으며 국내 최초로 사회복지사업을 펼치던 동부 지역에서의 기념예배, 구세군 전시장 운영 등 다양한 문화행사

# ‘탈동성애 국제연맹’ 준비위 출범

## 10여개국 단체 대표 참석...제2차 포럼 개최

국내외 탈동성애자들이 참여하는 ‘탈동성애국제연맹 준비위원회’는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 및 제2차 탈동성애 인권청년포럼을 개최했다. 탈동성애자는 동성애에서 벗어났거나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이날 행사에는 미국 동성애 치유단체인 포틀랜드 펠로우십의 제이슨 톰슨 대표와 인터내셔널 엑스터스 앨빈 전 이사, 가수 겸 작곡가 데니스 저니간 등 미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10여개국의 탈동성애 단체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탈동성애국제연맹 준비위는 선언문을 통해 “현재 한국을 비롯한 각국에서 동성애 찬반 논쟁이 뜨겁다”며 “동성애 지지 단체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이기에 인권적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하고, 동성애 반대 단체들은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으로 성중독의 일종이라고 주장한다”고 소개했다. 준비위는 “동성애의 실체를 분명히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밝혔다.

준비위는 “성소수자 인권으로 말하면 동성애자들보다 탈동성애자

들이 더 소수자들”이라며 “그럼에도 이들의 인권을 유엔을 비롯해 각 국가와 사회로부터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성소수자의 인권옹호란 명목 아래 침해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각국의 탈동성애 단체들은 탈동성애국제연맹을 결성기로 하고 준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탈동성애국제연맹을 발족하고 탈동성애 인권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전후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동성애 규탄 시위를 하고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역을 소개하고 “상처받은 동성애자들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마이클 젠거 가천대 교수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가르침은 물론 올바른 성윤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기독교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회복지선교연합회 박영목 목사는 축사에서 “한국교회는 동성애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들은 반드시 한국의 모든 교회의 이름으로 거부돼야 한다. 탈동성애국제연맹이 동성애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신천지 부산본부 건축 반대”

## 부산시민연대 긴급 기자회견

‘신천지 부산본부건물 건축반대’를 위한 부산시민연대(상임위원장 최홍준 호산나교회 원로목사)는 25일 부산 남동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가정파괴 등 반사회적·반국가적 행동을 일삼는 사이버·이단 단체인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부산본부 건축을 결사반대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연대에는 부산지역 1800

여개 교회를 대표한 부산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인건 주례교회 목사)와 부산성서화운동본부(본부장 안운은 온전교회 목사), 부산시민사회총연합회(대표 이종석 박사), 부산YMCA(이사장 신관우) 등 12개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인권에 시정과 선관위 등 주요 행정청이 있어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공익적 침해

가 크다”며 “학교 어린이집 유치원 등도 인권에 많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권에 지장을 받을 수 있고, 지역사회의 극심한 갈등이 조래돼 사회·경제적 손실이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시민연대 실행위원장 옥수석(거제교회) 목사와 실행위원 권남규(부산성서화운동본부 이단·사이비상담실장) 전도사 등은 “신천지는 거짓과 폭력의 사이버 종교집단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기독교인과 시민 등 9만여명이 서명한 건축반대 진

정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부산시민사회총연합회 이종석 대표는 “사회불안과 범죄를 일으키는 종교단체는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사회·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다”며 “신천지의 정체를 전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천지는 부산 연산동 4300㎡ 부지에 300여억원의 사업비로 본부건물 신축을 추진 중이다. 관할 연제구청은 사회적 갈등을 우려해 건축 신청서를 일단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 창군 이래 첫 여군 군종목사 배치

## 창군 이래 처음으로 여군 군종목사 배치된다. 육군 학생군사학교와 종합행정학교 26일 실시된 통합 임관시험에 관한 정은혜(35) 대위와 남소연(32) 중위는 육군 28사단과 공군 제511 방공포대에서 근무하게 됐다.

정 대위는 영남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2011년 11월 목사안수를 받은 뒤 올해 초 군종장교 선발시험에 응시했다. 정 대위는 “평소 군대에도 모성을 기반으로 한 목회자가 있으며 도움이 될 것 같았다”며 “공고

를 보고 망설임없이 지원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외되는 장병들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 중위는 2015년 백석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올 4월 목사안수를 받았다. 그는 “큰 누나처럼 때로는 엄마처럼 장병들을 보살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통합임관시험에서는 이들을 포함해 학사사관 60명과 단기 간부사관 30명 등 군 정예장교 764명이 임관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동부(NY, NJ) 교회

<b>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화-토) Tel: (917)733-7387 45-162 St. 17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yaho.com	<b>뉴욕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1부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경음),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b>뉴욕새생명장로교회</b> 담임목사: 허준준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2FI, Flushing, NY 11358 www.nyactch.com	<b>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18)461-7835, CP: (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ctch.com	<b>뉴욕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EWM에 예배: 오후 1:30 화요일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347)502-2571, Fax: (347)502-2570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http://nyzdchurch.org	<b>뉴욕목양장로교회</b>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201)342-9199, Fax: (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b>리빙스톤교회</b>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연합회: 오후 12:30 주일학교연합회: 오후 1: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b>롱아일랜드성결교회</b>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아예배: 오전 9:45 주일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 (516)333-1757, 목회부: (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b>에벤에셀선교회</b>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주일5부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c.us/	<b>에사라교회</b> 담임목사: 손환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b>좋은목사교회</b> 담임목사: 김신영 주일예배: 오후 2:00 목요일예배: 오후 2:00 목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월-금):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4:00 OT모임: 오전 9:30(화) Tel: (516)584-4088, www.joumcochchurch.org 1 West Hill Court Huntington Station, NY11746	<b>퀸즈초대교회</b>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 (718)886-4040, Fax: (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qcd.org	<b>퀸즈한인교회</b>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NCF예배: 오후 1:30 Tel: (718)672-1150 Fax: (718)672-1151 89-2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qcn.org
<b>한마음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영아예배: 오전 9:30 주일찬양예배: 오후 8:3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277-1103, Cell: (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gmail.com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1>하와이 및 북미 지역</h1>		<b>뱅크빌라델비아교회</b>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목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www.pcov.org Tel: (604)584-5780, Fax: (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b>브라질 서울교회</b>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9343 Rua Joaquim Pizar, 281 Cambuci S. Paulo Coo 01528-010	<b>브라질 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b>브라질 새사람교회</b>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b>아르헨티나 제일교회</b>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 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b>칠레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7:00 주일3부예배: 오전 9:00 주일4부예배: 오전 7:40 유. 초.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말) Tel & Fax: (562)556-78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b>토론토 가든교회</b>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기도회: 오후 7:30 Tel: (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b>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b> 선교사: 임한근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6부예배: 오후 7:30 Tel: (595)211-574-985 E-mail: hanjkn@gmail.com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b>하와이 행복교회</b>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808)585-1859 www.hawaiichurch.org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b>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Fax: (808)947-5151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 세계종교 문화뉴스



전호진 박사  
(미안마개혁신학교교신학교, 이슬람 선교 전문가)

## ISIS는 이슬람이 아닌가?: 이슬람과 ISIS 관계 연구(1)

최근 이슬람의 무서운 테러 집단인 이슬람국가(IS: Islamic State or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ISIS)는 국제사회를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 미국과 서구 연합군이 이라크 정부군을 위하여 IS에 공습을 가함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국민들의 1/3이 IS 통치하에 있으며, 미국은 IS를 격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하루 9백만 달러(약110억원)이 나 된다고 6월 12일자 CNN뉴스가 보도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세계는 IS나 이슬람 테러단체가 참 이슬

람이 아니라 보는 견해가 더 우세하다. 호주의 이슬람 연구자 클라이버 케슬러 교수는 이러한 견해 발표에 대하여, 이것은 이슬람을 모르거나 무서워하기 때문이라고 바로 지적한다.

그렇다. 이 문제는 대단히 민감하다. 많은 나라에서 이슬람을 강하게 비판하는 자들은 수난을 당한다. 금년 2월 오바마 대통령은 IS는 이슬람의 잘못된 해석의 결과라고 하면서, 미국이 이슬람과 전쟁하고 있다는 일부 무슬림 과격파들의 발언을 반박하였다. 미국은 과격 이슬람 테러세력과 전쟁을 하는 것이지 결코 이슬람과의 전쟁은 아님을 강조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친 이슬람 그룹이나 무슬림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슬람 과격주의는 이슬람이 아니라 힘주어 말한다. 이슬람 테러가 일어날 때마다 몇몇 한국인 무슬림 교수들은 언론을 통하여 이슬람테러는 결코 친 이슬람이 아니라고 언론에 크게 홍보한다. 이슬람권에서 일어나는 테러로 이슬람 이미지를 실추되어 이슬람은 종교로 부흥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상황은 정반대이다. 무슬림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IS에 가담하는 백인들도 증가한다.

최근 영국의 이슬람 전문가 Jessica Stern은 "ISIS: 테러국

가"에서 IS의 뿌리는 이슬람 교리, 역사와 깊은 관련을 있다는 것을 주장한다. 클라이버 교수도 이슬람 극단주의의 뿌리는 이슬람이라고 강조한다. 본 논문은 이들의 주장을 근거로 이슬람과 IS와 관계를 논하고자 한다.

1. 이데올로기로서 이슬람 종교

이슬람은 종교이면서 동시에 정치 이데올로기이다. 일본의 이슬람전문가 오사마 미야타는 "이슬람은 정치에 있어서는 협

1) 창설자 무함마드: 종교지도자, 정치가, 군사지도자 무함마드는 종교창설자, 정치가, 군사지도자이다. 이러한 모델은 구약의 모세뿐인데, 그러나 모세는 칼 대신 목동의 지팡이를 들었지만 무함마드는 칼로 이 수많은 전쟁을 치렀다. 무함마드는 죽기 전 콘스탄티노플의 비잔틴제국 왕에게 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나라 왕들에게 항복을 권유하는 서한을 보냈다. 그의 사후 이슬람이 중동, 구라파,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아가는 것은 예사였다. 부자들과 권력자들은 부정부패했고, 부족 간의 평화적 공존은 어려웠다.

이슬람에서 무함마드의 위치 무함마드는 어디까지나 인간임을 스스로 강조한다. 그러나 무슬림들에게 무함마드는 신은 아니면서도 아주 신성시되는 존재로, 알라의 특별한 사도이다. 무함마드라는 단어에는 반드시 Peace Be Upon Him 혹은 Peace and Blessings Upon Him(약자로 P. B. U. H.: 그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를 붙여야

## 이슬람은 종교, 정치, 사회, 문화가 통합되는 사회시스템 종교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개종자 무서운 대가 지불

의와 합의의 정신을, 경제적으로는 평등의 가치관을, 사회적으로는 공정의 개념을,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는 신의 가르침을 얻는다는 강한 확신을 무슬림들에게 주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이슬람은 자본주의를 대신하는 이데올로기로 말한다. 이슬람은 엄밀히 말하면 종교, 정치, 사회, 문화가 통합되는 하나의 사회시스템이다. 이슬람은 개인 구원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종교가 아니라 종교 공동체이자 정치 공동체이다. 아시아에서 비기독교 종교와 문화는 일종의 문화적 그물망(cultural net)이 되어 사람들이 사실상 빠져나오기 어렵게 되어있다. 종교는 결코 개인의 선택이 아닌 공동체 선택(communal decision)이다. 그러나 아시아 대부분 나라에서는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지 않음으로 종교는 개인의 자유라고 규정할 수 없는 권력장 18조는 아무 의미가 없다.

국제화 시대지만 가치관의 충돌(clash of value system)이 심각하다. 아시아에서 종교는 공동체, 혹은 국가 전체가 함께 믿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기독교 선교가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슬람은 종교가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이슬람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하는 배신자로, 무서운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로 칼로 진격한 것은 무함마드의 유연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살아서 28년의 전쟁을 치렀다.

무함마드의 생애 연구는 이슬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하다. 그의 생애는 불우했다. 가정에서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였고, 사회생활에서는 배신과 갈등, 증오가 그의 생애의 특징이라고 말한다. 이슬람이 사랑보다 증오와 폭력이 지배하는 것은 무함마드의 생애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쿠라이시 부족의 가난한 집안 출신에 부모가 일찍 죽어 삼촌 집에서 자라다가 대상(敵將)의 일꾼으로 사망을 당했다. 어릴 때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셈이다. 대상 주인이 죽음으로 15살 연상의 미망인과 결혼한다. 대상으로 다니는 중에 산에 가서 명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명상하는 풍습이 있었다고 한다. 명상 중에 알라 신의 계시를 받았다.

당시 아라비아 반도는 도시가 발전하였다. 특히 그가 살던 도시는 실크로드의 종착점이었다. 상업이 발전하여 그 도시는 부와 영화를 누리는 자들이 많았다. 현대적 용어로 하면 국제적으로 비즈니스가 발전한 셈이다. 그러나 사막에서 한 부족이 잘 살면 다른 부족이 와서 빼앗

한다. 코란17:1절에 알라는 '위대한 선지자'를 밤중에 거룩한 사원에서 먼 메카로 데려갔다고 말한다. 여기서 무슬림들은 무함마드가 아담에서 예수까지 모든 선지자들을 소집하여 일장 연설을 하였다고 믿는다. 수피 무슬림은 무함마드가 예루살렘에서 알라의 보좌에게 직접 여행하였다고 믿는다. 사우디의 교과서에는 알라가 무함마드를 특별한 선지자로 선택한 이유는 그가 성실한 사람으로 신뢰를 얻었고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는 선지자이면서 동시에 메신저(Messenger)이다. 메신저란 계시를 받은 자에게 적용되는데, 이슬람에는 4명의 메신저가 있다: 모세는 율법을, 다윗은 시편을, 예수는 복음(인정)을, 무함마드는 코란을 받았다. 코란은 신명기 18:18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자"라는 말씀의 선지자는 예수가 아니라 무함마드라고 주장한다. 수리3:81에 "한 선지자가 진리와 함께 너희에게 오나니"를 앞으로 무함마드가 올 것으로, 요한복음 14:16, 15:26의 보혜사를 무함마드로 해석한다. 그래서 기독교로 개종한 무슬림 학자들은 무함마드가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고 주장한다. (계속)



### 브라질

플레지오 디아스포라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의 손길을 호소합니다!

Rua. Lavapes 474에 소재한 플레지오 디아스포라는 주정부 인가를 받은 기독교 사립학교로 그리세리오, 캄부시, 아끄리마성, 썬조아경, 파만다리, 나바페스 주민들의 자녀를 가르치는 지역학교입니다.

한인교회에서 시작한 학교는 자선병원을 세우기 위해 12분이 구입한 건물이었었는데 사정상 방치되어 걸인 200여명이 무단으로 침입하여 어려움을 겪으면서 본 선교부에 1개월에 40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셔서 2년간 수리 후에 2001년 이곳으로 학교를 이사하여 15년 가까이 매해 건물을 수리하면서 매해 한 학년씩 증설하여 현재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를 운영하면서 현지인 학교로서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12분이 학교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곳에서 교육의 역할과 사명을 다하는 가운데 우범지대로 소문난 지역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위험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공학택지도, 자동차 보험회사도 다른 곳보다 가격을 더 받던 지역이었는데 지금은 학교로 말미암아 환경이 좋아지므로 오랫동안 문을 닫았던 가게들이 하나 둘 여는 가운데 학교 정문 앞에 위치한 전 기공사 건물이 철거되고 이곳에 쇼핑과 아파트 5천세대가 들어 올 것이라



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한 일이었지만 지난 6월3일 건물주들이 모여 이 건물을 팔기로 결의하고 100만불에 건물을 구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건물을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 선교부는 이러한 통보를 접수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이 건물을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사람으로서) 답이 없는 상황이지만 내게 능력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빌립보 4장13절 말씀을 의지하고 먼저 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면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과 썬파울에 세워진 모든 교회 교우들과 교민들에게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여호와 이름)

- 기독교 학교 설립의 꿈을 가진 독자들을 보내주시기를.
- 브라질과 미국, 그리고 한국을 통해 100만불이 모아지도록.
-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고등학교와 종합대학을 세울 수 있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플레지오 디아스포라는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세운 학교인줄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립학교인줄 압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말과 글을 가르치면서 한국의 문화를 가르치고 브라질에 진출한 한국 기업과 유대를 갖고 방문하고 견학하며 박람회 참여하는 학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사회를 밝게 이끌면서 인재를 양성하고 각 가정의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학교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현재 250여명의 학생과 38명의 교직원인 행복한 마음으로 배우고 가르치며 학교를 내 집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학교가 자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기는 또 하나의 기회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고등학교와 한국 사람들이 세운 명문 종합대학이 브라질 땅에 세워지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일을 행하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주시어 능히 기적을 베풀어주시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포교회 및 브라질을 섬기는 동역자 여러분!  
(16면으로 계속)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p><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오후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p>	<p><b>덴버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p> <p>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pcscchurch.org</p>	<p><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p> <p>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p>	<p><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중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회: 오후 8:00</p> <p>Tel. (215)945-1512, Fax. (215)945-2095 1550 Woodbourne Rd., Levittown, PA 19057 www.1946s.com</p>	<p><b>벤델교회</b>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영):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p>	<p><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대학예배: 오전 11:30 대학행년부: 오후 1:30 송년예배: 오전 10시, (만: 오전 11시) 유치, 청년부: 오전 10:00</p> <p>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opton, MA 01748</p>	<p><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1부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회: 오후 8:00 금요찬양회: 오후 8: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p> <p>Tel. (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p>
<p><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회: 오후 7:00</p> <p>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p>	<p><b>시애틀평안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p> <p>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church.org</p>	<p><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702)749-9929, Fax. (702)748-3825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www.andyokchurch.org</p>	<p><b>알칸사 제자들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1946s.com</p>	<p><b>앵커리지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p> <p>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p>	<p><b>엘파스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p> <p>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p>	<p><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p> <p>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p>
<p><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회: 오후 7:00 금요찬양회: 오후 8:00</p> <p>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etera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p>	<p><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p>	<p><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1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p> <p>www.l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us Rd., Richmond, VA 23235</p>	<p><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시 수요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p> <p>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nakc.org</p>	<p><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j.org</p>	<p><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p> <p>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p>	<p><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b></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 “크리스천을 위한 역라마단 기도 안내서” (2)

**열여덟 번째 날:** 이슬람권에서 여성할례와 아동결혼의 악습이 사라지게 하소서!(사11:9)

살아계신 하나님! 이슬람권에서 여성할례와 아동결혼의 악습이 사라지게 하소서! 여성들의 인격과 권리가 존중받게 하시고, 소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며 교육받을 기회가 주어지도록, 국제사회의 노력이 실효 있도록 도와주소서!

**열아홉 번째 날:** 이슬람권에서 일부다처제도와 시한부 계약결혼이 사라지게 하소서!(창2:23, 24)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중하고 아름다운 제도로 결혼을 정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슬람권에서 일부다처제와 시한부 계약결혼제도가 사라지게 하시고, 현대인들에게 부부의 진정한 사랑과 인격적인 연합을 방해하여 가정을 깨뜨리려는 사단의 집요한 계획이 실패하게 하소서. 여성인권을 결핵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소서!

**스무 번째 날:** 이슬람의 남성 위주의 이혼법이 바뀌게 하소서!(살전4:4, 엡5:22, 25)

사랑하는 하나님! 남자와 여자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이슬람권에서도 창조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존귀한 것을 알고, 서로가 존귀하게 대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남성 위주의 이혼법과 이혼법이 상호존중의 원칙위에 세워

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스물한 번째 날:** 이슬람권에서 신성모독법이 폐지되게 하소서!



시121:1, 2)

사랑하는 하나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성모독혐의로 억울하게 당하고 있지만, 경찰도 법률도 정자인도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오니, 기독교인 박해와 개인의 복수수단으로 악용되는 신성모독법이 폐지되게 하소서!

**스물두 번째 날:** 한국 여성들이 이슬람의 결혼개념을 알고 속아 결혼하지 않게 하소서!(마10:16)

살아계신 하나님! 결혼을 통해서 침투해 들어오는 이슬람의 확산을 막아주소서. 특별히 기독교인 여성들이 이슬람의 실태를 바르게 분별해서 속아 결혼하고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소서.

**스물세 번째 날:** 대한민국 대학가의 이슬람 확산을 막아 주소

서!(고후4:4)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 대학가에 퍼지는 이슬람으로부터 대학과 대학생들을 보호해 주소서. 한국교회와 특별히 대학생 선교회체가 이슬람권 유학생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전략을 갖게 하소서!

**스물네 번째 날:** 대입 수능에서 아랍어 과목의 특혜가 시정되게 하소서(암 5:24)

사랑하는 하나님! 작은 틈을 뚫고 들어와 이 나라를 이슬람화 하려는 시도가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수능 아랍어 선택자에 특혜가 시정되고, 교육제도가 이슬람화 전략에 이용되지 않게 도와 주소서.

**스물다섯 번째 날:** 이슬람 편향적으로 바뀐 중고등학교 교과서가 바로 잡히게 하소서!(잠22:6)

사랑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이슬람 편향적인 교과서가 바로잡힐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역사와 사회과목 교사가 바른 지식과 분별능력을 갖게 해주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진실을 알고 그 위에 지

주소서!(벧전2:9, 시72:1)

사랑하는 하나님! 한국정부와 위정자들이 이슬람의 속성을 바로 알 아서 국가의 미래와 후손을 위해 지혜로운 다문화정책을 시행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이 이슬람화 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께 쓰임 받게 하소서!

론들이 이슬람 편향을 넘어 이슬람의 정체를 알고 바로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스물여덟 번째 날:** 수쿠르브(이슬람채권특혜법)이 도입되지 않게 하소서!(딤후1:1)

사랑하는 하나님! 위정자들과 각 분야 지도자들이 사리아의 통치를 목표로 하는 이슬람의 속성을 알게 하소서. 수쿠르브 도입으로 이슬람 원리주의에 통로를 열어주지 않게 하시고, 눈앞의 경제적 이익보다 국가의 미래를 선택하게 하소서!

**스물아홉 번째 날:** 중동에 진정한 민주화가 이뤄지게 하소서(사 19:21-22)

사랑하는 하나님! 독재정권이 사라져도 여전히 암재와 땅에 아래 있는 중동과 이슬람권 영혼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소서. 진리와 평화의 왕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맛보는 진정한 민주화, 인권회복을 누리게 하소서!

**서른 번째 날:** 무슬림들이 땅끝에서 돌아와 주 앞에 예배하기까지 우리 기도를 이어가게 하소서!(시22:27-28, 계7:10, 마16:19)

사랑하는 하나님! 17억 무슬림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소서. 그들이 땅끝에서 여호와께 돌아오며,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게 하소서! 이슬람권을 위해 더 많은 중보자와 기도모임들이 생겨나게 하시며, 전 세계에 이슬람의 확산을 막고 무슬림들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 기도가 중단되지 않게 하소서!

(끝)



해를 갖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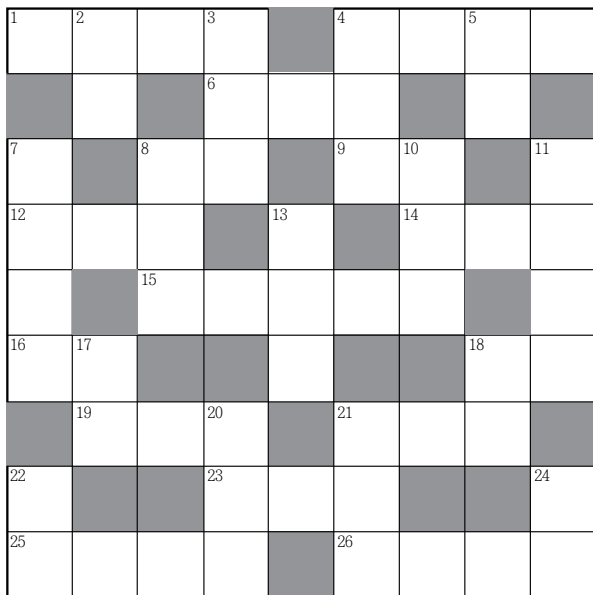
**스물여섯 번째 날:** 한국 정부가 다문화정책의 위험성을 깨닫게 해

**스물일곱 번째 날:** 이슬람 편향적인 매스컴의 태도가 바뀌게 하소서!(눅8:17)

사랑하는 하나님! 대한민국의 언

## 십자말 • Cross Word (87)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 <가로 푸는 열쇠>

- 솔로몬과 같은 시대의 바로의 왕비(왕상11:19).
- 헤롯 아그립마 1세의 시종(행12:20).
- 불로 만들어진 수레(왕하2:11).
- 모세의 형(출6:20).
- 피곤하여 기운이 없음(창19:11).
- 지중해 동북부에 있는 큰 섬인데, 현재 이름은 사이프러스(행 4:36).
- 미디안 군대가 기드온에게 패하여 이 지방에 있는 벤사다에 도 망했다(사7:22).
- 예수님이 자주 다니신 바다. 일명 갈릴리 바다(요6:1).
- 아들이 없음(눅1:7).
-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아들(창25:2).
- 누룩을 넣어서 만든 떡(출12:15).
- 소, 돼지 따위의 가축을 잡는 곳(사53:7).
- 물벌레. 동물의 피를 빨아먹고 살(잠30:15).
-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 나팔. 7일. 고향소리(수6장).
- 흔히 땀이 잘나는 사람의 온몸에 사상균의 기생으로 생기는 피부병의 한 가지(레13:39).

### <세로 푸는 열쇠>

- 므낫세 지파 올람의 아들(대상7:17).
- 예수께서 나사렛을 떠나 이곳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사셨으니...(마4:13).
- 모마에 있는 교우(롬16:14).
-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나라의 북쪽 경계로 생각했던 도시(민34:8).
- 영두과의 낙엽 교목. 봄에 불그스름한 오판화가 피(전12:5).
- 갓의 여섯 짝 아들(창46:16).
- 아하수에로왕의 일곱 내시 중 한 사람(에1:10).
- 아시아주의 서남 끝 피시야만과 홍해 사이에 들출한 큰 반도요 큰 사막지대(대하9:14).
- 예루살렘에서 출생한 다윗의 아들(삼하5:16).
-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오히려 하리라(요8:32).
- 거두어들여 깊이 간직함(산16:13).
- 군사를 실은 수레를 잘 정돈하여 간직해둔 성(왕상9:19).
- 오허려(창49:19).
- 무슨 일에 참가하여 관여함(고후8:4).
- 동방의 가장 큰 자. 순식간에 큰 불행을 당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중에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을 기록한 책.

### 십자말 정답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 서부(CA)교회안내

<p><b>감사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찬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b>나성순복음교회</b></p> <p>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양찬양예배: 오후 7:30(영양)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금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 11:30</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b>나성영락교회</b></p> <p>담임목사 : 김경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금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9:30, 11:30</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p><b>나성제일교회</b></p> <p>담임목사 : 김광삼</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금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b>나침반교회</b></p> <p>담임목사 :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후 11:30 세례기도회: 오전 9:30, 11:3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amp; Puente) / www.nachiban.org</p>		
<p><b>남가주든든교회</b></p> <p>담임목사 :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금 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p><b>남가주리더교회</b></p> <p>담임목사 : 김요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www.scrdm.org Tel: (213)215-8222,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p><b>남가주사랑의교회</b></p> <p>담임목사 :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전 9:20 영양예배: 오전 11:20 세례기도회: 오전 9:20,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b>대흥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9:30 수-금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 영양예배: 오후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8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b>등원교회</b></p> <p>담임목사 : 김상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세례기도회: 오전 5:30 영양예배: 오전 6:30(토) 영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07</p>	<p><b>디아스포라선교회</b></p> <p>대표 :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흠뻑 있는 우리의 중보자를 위한 선교회"</p> <p>목요예배: 오전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녹음), Fax: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rea, L.A., CA 90033</p>	<p><b>드림교회</b></p> <p>담임목사 : 이성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30 영양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후 11:30 세례기도회: 오전 8:00 세례기도회: 오전 9:30(월-토)</p> <p>Tel: (626)793-0880, 020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p><b>미주양곡교회</b></p>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금 예배: 오후 7: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b>미주평안교회</b></p> <p>담임목사 : 임승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1:45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토) 영양예배: 오전 6:00</p> <p>www.mpcia.org Tel: (213)381-222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b>빛과 소금의 교회</b></p>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45(월-토) 영양예배: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Torrance CA 90505</p>	<p><b>베델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김한요</p> <p>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전 11:00(청년)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1:00 영양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kcc.org 18700 Harvard Ave., #4 Irvine, CA 92612 www.kcc.org</p>	<p><b>복음장로교회</b></p> <p>담임목사 :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대학부) 영양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b>세계소망교회</b></p>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후 7:30 영양예배: 오후 8:00 영양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b>요셉선교회</b></p> <p>담임목사 : 정성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금 예배: 오전 7:30 영양예배: 오전 11:30 세례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p><b>얼바인침례교회</b></p> <p>담임목사 :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금 예배: 오전 5:30(월-토) 세례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0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b>일서크리스천교회</b></p> <p>담임목사 :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인종찬양) 세례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9839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p><b>은혜한인교회</b></p>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2:00 영양예배: 오후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토) 은혜세계기도회: 395월 24(일) 오전</p> <p>www.gracem.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b>주님의영광교회</b></p>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수-금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p><b>종은마을교회</b></p> <p>담임목사 :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 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후 6:00(토)</p> <p>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b>코너스톤 교회</b></p>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금 예배: 오후 7:30 세례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ch.com / e-mail: pastor@cornestonch.com Tel: (310)530-0400(CH), Fax: (310)530-9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b>토렌스조은교회</b></p> <p>담임목사 :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영양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후 8:00</p> <p>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88)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11)

지난 이야기에 이어 마태복음은 그 복음서 전체가 하나의 신앙교육 교과 과정의 표본이라고 볼만 만큼 그 교육의 전반적인 핵심내용을 짚어 있게 그리고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주요 가르침이 5부문에 걸쳐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5:1-7:27; 10:1-42; 13:1-52; 18:1-35; 23:1-25:46), 5장의 산상수훈을 위시로, 이 5가지 가르침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그리스도의 뜻이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는 우리 자녀들을 또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기 위한 기본 교육과정 및 교육 내용으로서 기독교교육의 기초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6-16구절은 전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이 그 주제입니다. 이 구절이 말하는 성령의 사역은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를 드러내어 우리로 알게 하시는 사역을 일컫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닌,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하늘의 지혜는 인간적인 그 어떤 고귀한 통찰력으로 또는 많은 배움과 지식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사역을 통한 영적인 삶의 영역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13절).

근본적으로 우리의 교육은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고 우리의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그리스도 안에 나

에 걸맞게 더욱 세련시키는 도구로 부르신 자들입니다. 따라서 오히려 그 의미와 가치가 매우 크며 이를 향한 책임과 거룩한 부담이 또한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행여 "교육이 성령의 사역이며 영적인 영역이라는 것"이 곧 교육이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것이며 인간적 노력과 역할을 배제한 일이라는 오해는 정말 불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터이니 우리는 아무런 일도 할 필요 없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신묘막측한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실 것"이니 우리가 교육적으로 할 일은 딱히 없고 그냥 기도나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은 참으로 안타까우리만큼 어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 '교육은 성령의 사역' (고전2:6-16)...내면화, 체화해 교육에 임해야 모든 교육적 실행들에 가치 더하고 열심으로 성령의 사역에 동참

또한 누가복음에 기록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의 조우의 사건(눅 24:13-35)은 그리스도의 교육 방법들을 잘 나타내주는데,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 교육 사역의 교육 방법론적 기초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론(v. 14), 인간 내면과 경험을 관통하는 깨우침을 위한 질문법(v. 17), 교종 및 설명(v. 25-27), 롬모델링(v. 30-31), 그리고 전체적으로 드러난 선포의 차원 등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초들을 다 자세히 다루지는 않음 것이나, 이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교육의 기초임에는 틀림없으므로,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언급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나타난 교육의 기초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오늘부터는 서신서들에 나타난 교육의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집중해보고자 하는 본문은 고린도전서 2:6-16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초는 우리의 이야기 전체적으로 참조하고 있는 저명한 기독교 교육학자 로버트 파즈미노(R. Pazmino)의 책 "Foundational Issues in Christian Education"에 잘 나타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교육은 성령의 사역임(Education as the work of the Holy Spirit)"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 중 일부인 고전2:10-14에 잘 나타나 있다.

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일평생 살아가도록 돕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고전2:6-16의 본문은 이러한 작업이 원론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점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한인교회를 위한-세계 모든 교회들을 위한-교육적 기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실행함에 있어서 자칫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그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근본적 진실입니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해도 교육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근본을 그저 명목상의 근본으로 차치하고, 우리의 교육을 우리 자신의 인간적 지식, 노하우, 경험 등의 영역이라고 여기는 듯한 모습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배워야 할 교육적 기초는 우리의 교육은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실히 인정하고 이를 내면화, 체화하여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는 그것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교육이 근본적으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사실이 우리 사역자들의 교육적 노력과 활동들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시어 사용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고 그 삶을 그 자녀라는 이름

리씩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교육의 사명을 온 정성을 다해 수행하여 우리를 통해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한 열매를 맺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육이 성령의 사역임을 기억하고 인정하여 이를 내면화하고 체화하여 실행하는 것은 우리의 날날의 교육적 노력과 실행들 가운데 성령의 임재를 인정하고 느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적 노력과 활동으로 섬기는 이들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바탕으로 그 진실한 사랑을 실제로 보여주는 것을 통해, 그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고, 예민하고 섬세하게 이를 깨닫고 응답하여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자로서 또한 교사로서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그의 제자로 자라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그것이 증거하는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르칠 때 이를 우리 자녀들이 이해하고 수용하여 고백을 하게 되는 일은 가르치는 우리의 영역도, 가르침을 받는 우리 자녀들의 영역도 아니며, 이는 성령의 사역이며,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만 실제로 발생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자(요일 2:17)찬190장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도..." 본문 속에 보여지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첫째,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다스리는 영역입니다. 요한이 본 세상을 바로 이것입니다. 이 세상이 신자 속에 들어와 있고 문화, 문명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 문화 배후의 세력은 바로 어두움의 문제입니다. 둘째, 신자 속에 들어

있는 세상은 그 안의 죄성인 육과 결탁해 하나님의 뜻을 항상 대적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그것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육, 육신 혹은 몸으로 비유했고 이를, 교훈, 그리고 교리의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자는 모두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영의 사람만이 영원히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갑시다.

### 화 참된 사랑(요일3:11-24)찬202장

16절 말씀처럼 형제를 위해 대신 죽을 수 있는 것이 신자의 사랑입니다. 첫째, 우리가 그리스도 자리에 올라가려는 자가 아니고 그의 공로를 따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 자리까지 나가게 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인 의, 인, 신은 형제 사랑으로 집약됩니다. 둘째,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18). 말과 혀의 사랑은 외식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까지 보내주신 아버지의 희생으로 나타났고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기 육신을 구하지 않는 최대의 희생으로 나타났으며 성령의 사랑도 수많은 장해물을 제치고 적용하시는 헌신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셋의 연합된 사랑이 구원을 성취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에게 성령의 부은바 되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룹니다.

### 수 선한 양심(요일2:5)찬189장

본문은 첫째, 말씀을 지키는 자 곧, 순종자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체현됩니다. 성령이 기록한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하기에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그 감동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는 구분되지 않기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것은 구원의 연합을 가리킵니다(요일15:1-8). 하나님나라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고 세상에서 먹고 마시나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맛보며 그 열매를 모든 곳에 나타내는 것 곧, 모든 법을 능가하는 초자연적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목표는 단순히 그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선한양심을 따르는 삶입니다. 그 길을 갑시다.

요한은 한 자매에게 교회를 위협하는 이단교회를 경계하라고 권합니다. 첫째, 진리와 사랑으로 표현된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은 신자생활의 중심이며 기초이며 수단이며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진리는 그리스도, 복음, 계명으로 표현되며 진리행함이란 네 방면의 적용을 가리킵니다. 1)사상적 적용-진리를 적용한 생각이란 진리를 기준으로 정리한 생각을 가리킵니다. 2)

### 목 영생을 따르자(요일2:12-27)찬206장

약한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어떻게 영위할까요? 첫째, 12절 말씀처럼 이미 영생을 가진 그리스도인에게 온전한 성장을 위해 세 계층 즉 자녀, 아비, 아이 청년에게 맞는 권면을 합니다. 자녀는 죄사함, 아비는 태초에 계신 이를 알, 아이들은 아버지를 알, 청년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거함이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이 네 경험을 한 자로 자라가야 합니다. 죄

이론적 적용-진리로 짜여진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의 변화가 진리의 적용입니다. 3)성품적 적용-생각과 이론이 성품으로 자리잡게 하는 일은 반복되는 진리의 연습을 통해 형성됩니다. 4)생활의 적용-삶이란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 집니다. 사회적 관계에서 진리의 빛을 드러냄으로 진리의 문화권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루트입니다.

### 금 진리에 거하는 자(요일4)찬403장

사도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로서 에베소교회를 진단했습니다. 첫째,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중 전자는 자기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서 비방을 일삼는 말쟁이로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악은 나의 영혼이 진리 안에 거할 때만 제거됩니다. 그러나 후자는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삼박자 축복으로 알려진 2절의 요점인 진리 안에 거하는 영혼이 복의 근원임을 보인대로 영

혼(마음)이 진리에 거할 때 형통과 건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을 힘써 줍니다. 진리는 예수그리스도(요일4:6)이고, 그의 말씀 곧 성경(요일17:17)입니다. 신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모든 것을 건 사람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배운 대로 행할 때 진리의 생명을 알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사도합니다.

### 토 진리의 길(요일9-15)찬518장

사도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진리로서 에베소교회를 진단했습니다. 첫째, 디오드레베와 데메드리오 중 전자는 자기 명예욕을 채우기 위해 교회에서 비방을 일삼는 말쟁이로서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교회 내에서의 악은 나의 영혼이 진리 안에 거할 때만 제거됩니다. 그러나 후자는 진리의 증거를 받은 사람입니다. 삼박자 축복으로 알려진 2절의 요점인 진리 안에 거하는 영혼이 복의 근원임을 보인대로 영

혼(마음)이 진리에 거할 때 형통과 건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둘째, 진리 안에 거하는 일을 힘써 줍니다. 진리는 예수그리스도(요일4:6)이고, 그의 말씀 곧 성경(요일17:17)입니다. 신자는 기록된 말씀인 성경에 모든 것을 건 사람으로 성경을 읽고 쓰고 연구하고 묵상하며 배운 대로 행할 때 진리의 생명을 알게 됩니다. 그런 체험을 사도합니다.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 서울시 동양구 광우동 340-1(131-231)	<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일예배: 오후 9:00 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8670(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주일6부: 오후 5:00(매일)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	<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주일5부예배: 오후 6:30 Tel: (82)2-2648-3191~3, (82)2-2646-3184 서울시 강동구 목동2동 520 (142-808)	<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www.seongsil.or.kr Tel: (82)2-958-9988, Fax: 3927-1008 서울 강북구 옥동2동 221-43 (142-073)	<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토요일은 쉰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713-26호
<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 인천시 서구 불포동 416-1(404-270)	<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일예배: 저녁 7:00 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용문동 137 번지	<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419-2	<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Tel: (8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	<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2:50 주일5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 Tel: (02)418-0481, Fax: (02)422-0751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17길 29(남대문동) www.shincheon.org	<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86-6579, 새벽(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b>안암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 (011)82-2-927-5511 서울 용매동 제기동 146-7
<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4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415 www.yangkog.org	<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 (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641-24 (151-029)	<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일예배: 오후 9:30 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79-12	<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인천광역시 부평구 인곡4동 294-1(1403-838)	<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	<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금요일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	<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 (8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



# 예수를 사랑함으로 정결에 이르자!

## TGC, 도덕적으로 타락한 목회자들의 4가지 유형들 소개

하워드 G. 헨드릭스(Howard G. Hendricks, 1924-2013)는 달라스신학교에서 오랜 기간 동안 교수생활을 했고, '프라이스 키퍼스'의 명 강연자로 정평이 난 목회자다. 헨드릭스 교수에게서 '리더십' 클래스를 들은 미국 교회 중견 목회자인 가렛 켈 목사(Garrett Kell, Del Ray Baptist Church in Alexandria, Virginia)은 아직까지도 그 과목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헨드릭스 교수는 구약 성경의 '다윗의 타락'을 주제로 폴타임으로 사역

하는 목회자들의 도덕적 타락을 연관시켜 강의했기 때문이다.

켈 목사는 사역 초기부터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죄악과 타협하는 것을 목도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 역시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았더라면 너무나도 쉽게 돈이나 성적 타락에 빠졌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타락한 목회자들의 유형'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THE PATTERN AMONG FALLEN PASTORS).

우리들 대부분은 도덕적인 타락과 같은 죄악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마치 246명의 목회자들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경고한다.

교만은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사람인 삼손을,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을 잊게 한다. 그 누구도 죄가 주는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만약 나는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조만간 엄청난 타락에 빠지게 될 것이다.

깨어 있으라! 잠언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4. 정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이루어진다.

목회자들 역시 죄악에 빠지게 되자, 어느 순간부터 표류하기 시작했다. 기도는 열정 없는 중얼거

헨드릭스 교수는 2년 사이에 도덕적으로 실패한 246명의 목회자들과의 설문과 상담을 통해, 이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였다는 점을 분별해 냈다. 그러나 이미 구원의 확신을 받았지만, 이들은 진정으로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져 있었다. 바로 24개월 만에 모두가 간음에 해당되는 관계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헨드릭스는 설문과 상담 후, 다음과 같은 3가지 공통분모들을 발견했다:

-246명 모두 죄를 범한 후 매일 하던 기도, 성경읽기 그리고



## 고립형, 연쇄형, 교만형, 예수회복형 타락 유혹보다 강한 예수 붙잡아야

예배를 중시했다.

-80% 이상은 상담을 호소하는 다른 여성들과 진지하고 중요한 시간들을 가진 후에 잠자리까지 같이 하게 됐다.

-246명 모두가 "이러한 타락은 나에게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켈 목사는 이러한 공통분모들을 바탕으로 목회자들뿐만이 아니라 크리스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유혹과 죄악인 타락에 대한 4가지 교훈을 말해준다.

1. 죄는 고립으로 나아가게 한다.

사탄은 어둠에 살며 우리를 그곳에 계속 가두어두려고 한다. 모든 거짓들은 어둠에서 최상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에게 오라고 하시며, 우리를 교회 안에 있게 하시려고 부르신 이유가 바로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신 것은 사람들이 서로 죄와 싸우면서

돕기 위한 공동체를 포함해서 많은 이유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라는 관계로 부르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진실을 말하고(엡4:15, 25), 서로가 죄를 고백하며(약5:16),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를 벗어날지라도 충분히 쫓아가 데려올 수 있도록 서로가 사랑하기 위함이다(마 18:10-20, 갈6:1-2, 약5:19-20).

당신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는가? 정말로 당신을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더 이상 어떠한 죄를 범했는지 혼자서 숨기지 말고, 멀쩡하다고 위장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서로가 사랑하는 관계들이라는 은혜로 나와야 한다. 당신은 절대 혼자 아니!

2. 만약 당신이 죄에 빠졌다면, 당신은 또 너무 쉽게 다른 죄에 빠지게 된다.

죄의 기술기는 미끄럽다. 당신이 죄악이라는 심해의 끝을 걸으면 걸을수록, 당신은 순쉽게 빠지

기 쉽다. 헨드릭스 교수의 연구에 참여한 목회자들은 마치 위협을 즐기듯이, 또 다른 죄악들에 자신들을 계속 방치시켰다. 그들의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한 경고, "네 길을 그(그녀)에게서 멀리 하라 그(그녀)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잠5:8)를 무시했다.

이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 또 자신들이 목회자로서 지켜주어야 했던 사람들의 마음도 지켜주지 못했다. 오히려 이들은 죄와 유혹의 욕심에 눈멀어(엡4:22, 히3:13), 사람들을 파멸의 구멍으로 인도했다(마 15:14).

죄는 문 앞에 엎드려 있고(창 4:7), 우는 사자처럼 짐어 삼키려고 한다(렘5:8). 그런데도 왜 당신은 죄가 가까이 오도록 방치하고 있는가? 죄로부터 도망쳐라, 절대로 죄에 빠지지 말라(창 39:6-12, 롬6:12-13, 딤후2:22, 잠5-7).

3. 교만은 우리의 악점을 보지 못하게 한다.

림이 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에는 더 이상 흥분하지 않고, 예수를 사랑한다는 말 역시 과거가 돼 버린다. 죄가 주는 유혹은 모든 것을 버려서라도 더 강도 높은 쾌락과 만족을 얻으려고 할 만큼 버터내기가 힘들어진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더욱 강하시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 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자비로 다가오신다. 당신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예수께 결코 차가운 마음으로 나아가지 말아야 한다. 매일 순간순간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신다고 확신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러면 충분히 죄와의 싸움에서 버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신다.

매일 그분께 나아가며, 함께 걸으며, 다시금 열정을 되살려라. 그리고 도와달라고 간구하라. 그러면 예수께서는 가까이 밝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

## 시(詩)로 읽는 성경(聖經) - 모세오경



志常 김길홍 목사 (시인/소설가)

### 꿈의 사람 요셉(Joseph) (창세기 37:1-50:26)

야곱 십사년 머슴살이 삼인 라헬과 노년에 아들 요셉 얻어 채색옷 입히니 꿈꾸는 요셉 형제들 질투로 은 이십에 종으로 팔리어 가네

애굽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간 요셉 날마다 순간마다 슬픔 잊고 님만 바라보더니 성실한 요셉 집사장 되어 꿈 다독 거리네

보디발 아내 뜨거운 여름 한날 옹모 준수한 요셉 유혹하여 옷깃 잡다가 도망가는 요셉 누명 석워 왕의 감옥 넣으니 국무총리 수련장이라

아훼 함께 하사 옥사장 되고 왕의 술과 떡 맡은 자 꿈 해석해주니 그 소문 바로 왕에게 들리어 칠년 흉년 칠년 흉년 꿈 해석 하였네

그 나미 삼십에 대제국 애굽 총리되니 아훼의 설리로 손길이라 여호와 이래

은 세상 흉년들어 야곱 식구 주리어 곡식 사러 아들들 애굽 보내니 종으로 판 동생에게 무료 끓은 형들 어린 시절 요셉 꿈 보는 순간 일세

요셉 지혜로 형들이 아버지와 젖 동생 사랑하는 마음 알고서 그들 앞 대성통곡(大聲痛哭)이니 오 놀랍고 기쁜 일 아닌가!

늙은 아비 야곱이 소식 듣고서 무슨 생각 무슨 말하리오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대 제국 국무총리라

세월이 갈수록 야곱은 왕 같으니 열두 지파의 아비요 칠십인 족장

그 이름 이스라엘 아훼 복 주사 타국에서 사십일 국장 치른 자 되었는데 그가 열조와 함께 막벨라에 묻히니 나그네길 복된 삶 복된 죽음 일세

요셉 "아훼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리라" 예언하고 "자기 해골도 가져가라" 유언하니 꿈의 사람 백십세에 눈 감았네

그의 삶 마치 꿈꾸는 것 같았으니 아훼 손길 보는도다 아훼 앞에 꿈꾸는 자 복되어라 할렐루야 아멘

(13면에서 계속)

부디 플레지오 디아스포라를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2015년 6월24일 플레지오 디아스포라 이사장 강성철 목사 이메일: kangsungchuel@gmail.com

### 플레지오 디아스포라 학교소식

플레지오 디아스포라(이사장 강성철, 교장 Laura)는 지난 6월23일 2015년 한 학기를 마치면서 2012년 브라질 교육부 승인을 받은 한글학과 주최 한글 쓰기대회를 실시했다.

동 대회는 플레지오 디아스포라 중학생 68명이 출전하였는데 시편23편을 주제를 받아 실시하였다. 동교는 9월에 읽기대회, 10월에 말하기 대회 및 한국말 노래경연대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10월 17일 주성파울로 한국교육원에서 주최하는 수능시험을 동교에서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 사람과 교회와 선교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필독서!



### 바로 그 교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세우기 목회 건설팅!

김성진 지음 / 416면 / 15,000원

중소형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 지역에 맞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는 최상의 가이드북.

중소형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목회자에게 목회의 타깃을 명확하게 하고, 목회의 ABCDE를 강화하고, 전략적 사고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 이슬람 끌어안기

매우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무슬림 선교의 필독서!

조르주 후스니 지음 / 신동철 옮김 / 280면 / 12,000원

현재 미국 내 무슬림,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유학 온 이슬람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수십 년째 해온 베테랑 사역자가 최근에 펴낸 첫 번째 저서이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 20퍼센트는 아시아의 이슬람권 출신인 현실 속에 국내 무슬림 전도 사역에 영감과 도전을 줄 특별한 책이다.



### 목적 찾아가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유인 되게!

안중필 지음 / 264면 / 12,500원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목적을 찾아가려면 필수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발선에서 머뭇거리며 고민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한 두 번쯤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좌절하는 이들, 또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찾아 줄 책이다.